



시론

하나님과 함께 춤을!



민경업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뉴스위크지가 21세기의 C. S. Lewis라고 칭찬하고 달라스 월라드가 이 시대에 가장 주목할 목회자라 격찬한 뉴욕 맨해튼의 리디머장로교회 담임인 팀 켈러 목사가 쓴 책 중에 “왕의 십자가”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을 설명하면서 그 모습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춤을 추는 장면이라고 하였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 인간 세례 요한에게 기꺼이 세례를 받으신다. 성부께서는 그 아들을 칭찬하시고 성령께서는 비둘기의 형태로 고요히 그 자리에 임하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합당한 묘사인가! 그러면서 팀 켈러는 신앙생활이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춤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 춤추시는 하나님의 춤 속에 함께 뛰어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자의 행복이 신앙생활의 축복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도 둘로 나뉜다. 구약 성경에 동시대에 살았던 사울과 다윗처럼. 사울과 다윗은 어떤 면에서 출발점이 비슷하다. 사울은 개인은 탁월하였지만 사울이 속한 지파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어찌된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에 속하였다. 이것은 다윗이 비록 탁월한 지파의 출신이었지만 그 가정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한 막내였다는 사실과 궤를 같이 한다. 두 사람은 모두 시작점에서 겸손했다는 사실도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다. 이후 그들이 걸어간 길은 너무나도 달랐다.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급속히 교만해졌다. 왕이 되었으니 제사장이야 자기도 집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전쟁에서 이기면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기에 바빴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만 할뿐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는 자기만이 모든 것을 지배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에게 왕이 될 기미가 보이면 이유 불문하고 그 썩부터 잘라야 한다고 생각했고 실천하였다. 사울은 절대 하나님과 춤추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나 홀로 춤을” 추는 사람이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끝없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는 자체에 목숨을 걸지 않았다. 그저 자기 앞의 일에 충실할 뿐이었다. 사울의 눈에 들어 군대의 장이 되었다가 그의 시기로 천부장으로 강등되었지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다. 사울을 피해 다니며 고생이 극심했지만 사울을 죽일 두 번의 결정적인 기회 앞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앞세워 그를 죽이거나 죽이는 일을 방조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무기력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복족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기만 하면 남북통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 나라가 스스로 붕괴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다윗이 피동적이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춤추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원하실까? 원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그는 그렇게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였다. 그는 실로 하나님과 함께 춤추기를 원하였다.

몇 주 전에 우리교회는 직분자를 선출하였다. 20명 후보 중에 16명은 당선되고 4명이 낙선되었다. 사실 직분자를 선출할 때마다 적잖은 후유증을 경험했던 우리교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간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고 교인들 중 다수가 바뀐 형편이라 고민은 더 깊었다. 그래서 목사 임장은 다 당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교인들에게 전체를 지지하는 쪽으로 부탁하며 선거운동 아닌 선거운동을 했다. 그런 결과 대다수가 당선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낙선한 이들이다.

<7면으로 계속>

시사

유교적 근본가치 활성화에 하나님 필요!

CT, ‘유교가 중국내 기독교적 메시지 이해에 도움’ 보도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세계 각국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적은 나라 1위에 중국이 올랐다.

65년 동안 무신론적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이니 그리 놀랄 만한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베이징에 거주하는 풀리처상 수상자인 저널리스트 이안 존슨은 해당 질문이 중국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상띠’(shangdi/上帝)를 사용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 용어는 현대 중국에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에만 거의 유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중국인 수가 “실제적으로 놀랄 정도로 많았다”는 사실은 최근 그리스도인이 6000만 명에서 1억 명(인구의 4%에서 7%)으로 추산되는 중국이 조만간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은 국가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공산주의의 기세가 아직 수그러들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유교의 본산인 중국은, 이제 기독교가 중국 문화에 통합해 하늘의 이치 즉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증거가 오히려 유교의 근본 가치들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는 최근 보도하고 있다(A New and Old Worldview Divides China's Christians As Communism Fades: Is Confucianism a rival religion? A moral system ripe for integration?).

고대 중국의 철학자 공자의 교향에 수백만 달러가 들어가는 대형 교회가 세워질 예정이었다. 취푸의 향리들은 그곳에 들어서는 교회가 기독교를 중국 문화에 통합시키기를

(ChinaSource)는 학술지에서 이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최근 고든콘웰신학교와 옥스포드 선교연구센터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에서는 유학자들과 기독교 학자들



를 원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며, “때가 무르익었다”고 글로벌차이나센터(Global China Center) 디렉터인 라이트 도일은 말했다. 일부는 유교가 불교와 도교, 이슬람, 가톨릭, 개신교와 나란히 중국의 공인 종교로 부활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유교를 단지 “도덕체계”로 볼 뿐이라고 양은 말했다. 한편, 그는 교회들은 유교와 경쟁하거나 유교를 대체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유교를 활성화시키고 개혁시키려고 노력해야 하며, 유교적 맥락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유교와 기독교

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바울이 알 수 없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을 아테네에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독교는 유교의 ‘천(天)’개념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양은 말했다. 그는 유교가 중국적인 기독교 신학을 위한 기초가 될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문화적 맥락 안에서 해석된다. 그리고 중국의 문화는 유럽이나 고대 그리스 문화에 기초한 기존의 신학으로부터 기독교적 메시지를 뚜렷하게 구별 짓는 무엇인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양은 말했다.

“지성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논쟁” 많은 중국인들에 영향 미쳐

바울의 아테네 전도와 동일방식으로 유교 ‘천(天)’ 개념에 초점

바랐다. 그러나 유학자들은 공자 사당에서 2마일 떨어진 곳에 136피트 높이의 건물을 세우는 그 프로젝트를 비난했다. 그들은 그 프로젝트를 외세의 신앙이 중국을 위협하는 구체적인 상징으로 보았다.

결국 그 교회 프로젝트는 2011년에 중단됐다. 그러나 기독교와 유교가 중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신앙 체계인 만큼, 두 진영의 사상가들은 둘의 관계 형성 가능성을 두고 토론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에 차이나소스

이 함께 모여 새로운 대화를 시작했다. 그 결과, 두 진영은 “관계 형성의 온도”를 경험하고 있다고, 고든 콘웰 세계선교센터 디렉터 겸 로잔 운동 동아시아담당 부디렉터인 데이비드 로는 말했다. “최근에야 비로소 중국의 기독교 사상가들이 더 나은 통합을 위한 신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퍼듀대학교 종교와 중국사회센터 디렉터인 펑강 양은 말했다.

유학자들이 점차 그들의 신념 체계가 중국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

의 공통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일에 의하면, 유교와 기독교 사이에 양립 가능한 가르침에는 공자의 황금률도 있다. “남이 네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도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 인과, 의, 효, 근면도 기독교와 나란히 갈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도일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고 말했다. 유교는 인간의 본성을 선한 것으로 보며 물질적 세계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스도인들은 유교의 이 두 가치를 수용하게 되면 “인본주의”에 경도되고 신앙보다 도덕을 우위에 두

“유교가 신학적 사고를 위한 문화적 자원으로 활용된다면, 유교는 우리의 기독교적 메시지 이해를 더욱 살찌울 것이다.”

결론으로, 다수의 중국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논의를 잘 모른다. 그러나 “지성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논쟁”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로는 말했다. “평균적인 사람은 ‘나는 유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아마도 ‘나는 둘 다이거나, 아니면 둘을 조금씩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8(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복음화 대성회

“변하여 새사람되리라”(삼상10:6)

주강사: 총재 이태희목사 / 전미주대표회장 한기홍목사 / 대회장 신승훈목사



성복교회 담임



은혜한인교회 담임



주님의 영광교회 담임

일시: 2014.6.27 ~ 29

● 27일(금) 7:30pm ● 28일(토) 6:00am, 7:30pm
● 29일(주일) 7:00pm

장소 LA주님의 영광교회

특별찬양: 나성 순복음교회 성가대
주님의 영광교회 성가대
은혜한인교회 성가대

주최: 남가주 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신승훈 목사)

후원: 미주 기독교총연합회, 남가주 교회협의회, 오렌지카운티 교회협의회,미주 성서화운동본부

주소: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eb: http://gcjc.org
Tel: 714-392-9470/213-749-4500 Fax: 213-749-6700 E-Mail: info@gkc.org

✧ ✧ ✧ 빛과 소금으로...

엄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파란 눈의 선교사

마켓에서 만난 어느 분과 인연이 되어 이웃삼고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과도 서로 친분이 있던 터이라 서로 교제가 한결 편안하였습니다. 어느 듯 아내와 권사님은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전도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해가 지났지만 그의 심경엔 아무런 동요나 변화도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실망하시며 권유를 포기하셨지

만 포기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아내는 틈틈이 정성을 쏟아 붓곤 하였습니다.

그 분 곁에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워낙 대접하기를 즐겨할 뿐 아니라 좋은 것이 있으면 이웃과 아낌없이 나누고 어려운 일을 부탁받으면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분이 신앙만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하며 모두가 안타까워하곤 합니다.

그 분이 처음 교회를 접한 것은 어릴 때 농촌마을에 있는 작은 예배당에 놀러갔을 때였다고 합니다. 친구들 손에 이끌리어 간 작은 예배당 안에는 키가 장대하게 크고 금발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선교사가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멀리서 바라 볼뿐 차마 가까이 가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올겐 반주를 하시면서 “예수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찬송을 하시는 선교사님을 차마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창문 밖에서 흘금 흘금 바라보면 선교사님은 더욱 큰 목소리로 찬송을 하셨다고 합니다. 수줍은 아이들이 밖에 있는 것을 눈치 채시고 찬송을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크게 부르셨을 것이라고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께서 잣을 따기 위해 나무에 오르시다가 떨어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잣

나무에 올라 잣을 따다가 물래물래 선교사님 부엌 부뚜막 위에 올려놓고 도망치듯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날 그분은 선교사님이 그 잣을 드셨는지 궁금해서 살금살금 부엌으로 다가갔더니 부뚜막 위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이 차려져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주치면 행여 도망가서 다시는 안 올까봐 밥을 먹을 동안 기척도 하지 않으시고 잣에 대한 고마움을 그렇게 깊으셨다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 선교사님의 부뚜막에는 밥상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텃밭에 농사를 지으셨는데 거둬드린 농산물을 마을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었다고 합니다. 늘 멀리서 다정하게 바라보시던 선교사님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한국어에 능통하신지 원래 백인들도 언어가 같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 분에게 있어서 어린 시절 교회는 다정한 아버지 같은 선교사님의 사랑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만난 교인들은 그에

게 어떤 감동도 주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오래전 칼럼에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주일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햄버거 가게에 갔었다고 합니다. 햄버거를 시켜 먹으려 하니 한 신사가 그분에게 다가와 교회 다닐 것을 권유하며 다정하게 대하더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 흡사스로 보이는 사람이 와서 구걸을 하자 “재수 없어 저러 꺼져!”라고 하며 냉정하게 박대하더니 식사를 마치고는 옆에 있는 교회로 유유히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 햄버거 가게에서 겪었던 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을 통해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라고 고백합니다.

“한국 교회는 구원 받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한국 유수대학 정치학 교수께서 비판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시평을 통해 말하기를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지금 아픈 곳이며, 한 곳이 아프면 그곳을 치료하기 전까지 온몸이 아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파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는 병든 사회요,

무너진 공동체라 말하면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해야 하는 까닭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특별히 체제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생겨난 아픈 사람들은 마땅히 온 사회가 달려들어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정신의 아픔을 치료해줄 영적 치료자와 몸의 아픈 곳을 치료할 의사가 공동체의 아픈 곳을 치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영적인 치료를 맡아 감당해야 할 교회가 물질 중심으로 향해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구원과 상생의 길을 가는 교회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린 시절 그 분을 사랑으로 감싸주던 파란 눈의 선교사가 젊음을 희생하며 농촌에서 자신이 키운 곡식을 나누어가며 복음을 전하던 것 같이 오늘날 무너진 공동체, 아파하는 사회를 위해 따뜻한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푸 / 른 / 초 / 장

김수명 목사

(타코마한인장로교회 원로)



책임감이란 “맡아서 해야 할 일 무나 의무를 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국립표준국어 사전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분야에서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생사가 오가는 순간을 다루는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 책임감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6일 한국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세월호 참사사건에서 우리는 책임을 저버린 사람들의 결과가 300여명의 존귀한 생명들을 진도 앞 바다에 수장시키고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가족들의 가슴에 묻는 뼈아픈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족들에게 무슨 말로나 물질로도 보상될 수 없고 표현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가져왔고, 온 국민의 애도와 함께 분노를 가져온 사건이었습니다.

공소장에 드러난 선장과 승무원의 행적에 대한 내용을 보면, 선장과 승무원 8명은 지난 4월 16일 아침 8시 52분 조타실에 모여 탈출을 모의했다는 것입니다. 여담이 방직인 선박의 문은 물에 잠길 경우 수압 때문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선박의 2층 높이인 침수한계선까지 물이 차오르면 배를 버리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복원력을 잃은 배는 전복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준석

선장은 “승무원들만 어떻게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승객들을 위해 있는 사람들이 승객을 살릴 방법과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자신들만 살 방법만을 생각했다니 이것이 객주가 도전이 된 것이고, 확실하게 책임감을 버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칸

트는 “인격은 책임 능력”이라는 말을 했는데, 세월호의 선장과 승무원들은 인격이 파산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책임감을 버릴 때 세월호에서 일어난 비극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책임감이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의 사건은 불순종이 인류비극의 원인이었다는 것으로 익히 알고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접근을 책임감을 저버린 결과로 인류에게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비극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범한 죄에 대한 책임을 서로 남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12절을 보면,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주었기 때문이라고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먹고 안 먹는 것은 자기의 사에 결정되는 것인데, 자신이 먹은 것을 하와 때문이라고 남을 탓했습니다. 하나님에게까지 은근히 원망과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마귀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둘 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책임을 회피하면서 남을 탓하고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아담과 하와 부부간의 관계도 악화된 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죄악 때문에 인간세상에 비극의 결과를 가져오고 말게 되었

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는 책임을 감당하고 책임을 질 줄 알아야 그 곳에 생산적이고 아름다운 좋은 관계가 생길 수 있지 책임회피에는 파괴적이고 살인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미 인류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 회피한 아담 부부의 불화의 관계는 그 집안에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볼 때 책임을 진다는 것은 좋은 관계를 생산하는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이지만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감정에 인간이 사로잡히게 될 때 불행을 가져오고 마는 책임을 깨닫게 하여주고 있습니다.

책임감

(창세기 3:9-13)

아담은 하와를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할 만큼 사랑했지만 급박한 상황에서는 책임을 전가시키는 관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남녀가 세기적인 사랑을 하여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다고 해도 사랑의 감정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식어져 간다는 것을 너무나 삶을 통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이 식기 전에 책임지는 관계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감정을 관계보다 항상 앞세우게 되어 서로가 책임을 회피하고 서로 상대를 평가하고 다투는 관계가 되어 서로가 힘들어지고 결국 갈라서기 까지 되는 것입니다.

면 그것은 모두 당신의 공이요, 만약 실패한다면 실패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소. 만약 작전이 실패하면 장군은 링컨의 명령이었다고 말하시오. 그리고 이 편지를 공개하시오.” 책임은 자신이 지고 영광은 부하에게 돌리는 링컨의 마음씀이, 사랑의 감정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식어져 간다는 것을 너무나 삶을 통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이 식기 전에 책임지는 관계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감정을 관계보다 항상 앞세우게 되어 서로가 책임을 회피하고 서로 상대를 평가하고 다투는 관계가 되어 서로가 힘들어지고 결국 갈라서기 까지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이 인간의 범죄와 식어진 사랑을 탓하지 않으시고 주님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것은 사랑을 관계로 회복시키고 승화시킨 놀라운 교훈을 오늘 우리 인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을 탓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감정이 항상 앞서는 모습에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성숙한 모습이 되어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격의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심각하게 각성하게 우리의 의식에 각인되어야 하는 것은 잘못은 내가 저질러놓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그런 아주 파렴치하고 수준이하의 저능한 판단을 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는 아담 자신이 해놓고 책임은 아내와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수준이 결국은 인류에게 엄청난 고통과 슬픔과 죽음의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자신의 범죄와 실수를 솔직히 인정할 줄 아는 개인과 국민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레바논에 해병대를 배치했다가 테러리스트의 자살 폭탄공격으로 소속가 무너져 무려 230여명이 장병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군 총사령관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추궁이 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미국 국민은 그 누구도 레이건 대통령을 향하여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한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을 미국에 사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미 국민들은 오히려 더 단결하여 레이건 대통령을 지지해주었습니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아주 돋보여진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7면으로 계속)



ESL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voice, Conducting, Composition CCM, Instrument)
Theology (Christian Education)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English Education (TESOL)
Musice (voice, Conducting, Composition CCM, Instrument)
M.Div

Doctor Degree Programs

Ministry (Counseling, Education, Mission, PT)
Music (Voice, Conducting, Composition CCM, Instrument)
Leadership

1986 -2014, 28th Anniversary 대학설립 28주년



28 주년 기념, 학위수여식
Graduation commencement
June 13, 2014 3:00 PM
Midwest Summer Festival
June 13, 2014 7:00 PM



Dr. James Song
Founder/ President

학점 취득과정과 학위취득

- 1) 직장과 사역자를 떠나지 않고 On Line 혹은 집중강의를 통해 학점과 학위 취득가능.
- 2) 미국에 유학하여 (SEVIS I-20 Form 발행)학점취득가능 Study Options
 - E-Learning Courses and Blended Courses
 - On-campus courses - SEVIS I-20(유학가능)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U.S.A
usa@midwest.edu (636) 327-4645, 070-8690-2662

www.midwest.edu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성경적 세계관” 삶에서 실현한다!

-12세 이하 아이들에게 휴대용전자기를 사주지 말아야 하는 이유들(하)

지난번에 이어 12세 어린이들에게 왜 휴대용 전자 기계를 사주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나머지 이유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2013년에 발표된 Common Sense Media 및 여러 아동 의학 보고서와 리포트에 의하면, 21세기는 휴대용 전자기계가인 휴대전화, 태블릿, 게임기 등등으로 인해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이나 사용이 놀라울 정도로 증대했는데, 특히 아주 어린 어린이들에게서 나쁜 증상은 훨씬 더 심각하다는 보고입니다.

Cris Rowen이라는 소아치료

을 ‘공공건강성 위험인자’로 분류했지만,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2013년에 또 다른 나쁜 법안이 시민들의 의견도 없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가족들이 함께 보는 프라임 타임(prime time)인 저녁 6시에서 10시 사이에도 온통 살인, 강간, 선정적인 성적 묘사가 된 영화들이 TV에 가득합니다. 그 결과, 현재 통제 불능의 폭력성을 보이는 어린이들을 위한 격리수감실의 숫자만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7. 두뇌저하

빠른 속도의 미디어콘텐츠가

수록 자녀들의 전자기기에 대한 집착은 커지고 결국 자녀들은 중독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Gentile이 2008년에 발표한 리포트에 의하면, 8세에서 18세의 아동 11명중 한 명은 이러한 첨단기술 중독 증세를 보인다고 했는데, 현재 여러 리포트에 의하면 그 심각성은 훨씬 높아졌습니다.

9. 전자파 노출

2011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모든 무선장비들의 전자파 노출로 인한 카테고리 2B 위험요소를 ‘

2A-‘발암물질 가능성’으로 재분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에서는 첨단전자장비에서 방출되는 EMF 전자파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치명적인 3가지 영향을 언급하면서 등급 재고까지 요청할 만큼 그 위험성이 큰 것을 확인시켰습니다(AAP 2013).

10. 첨단기술을 통한 어린이 양육과 교육방법은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Rowan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지만, 기술을 과용

폭력성, 두뇌저하, 중독, 전자파 노출 등 어린이에 치명적
첨단기술 통한 양육과 교육방법은 지속적으로 불가능 해

사이며 아동심리학자는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거나 극도로 절제할 것을 모든 학부모, 교사, 그리고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어 나머지 5가지 이유는:

6. 폭력성

Anderson(2007)의 보고에 의하면 폭력적인 미디어는 충분히 어린이 폭력성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Huesmann(2007)에 의하면, 아주 어린 저연령 어린이들마저도 오늘날의 미디어를 통해 물리적, 성적 폭력에 노출되는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보기에 괜찮다고 아이들과 함께 보는 것은 절대 오산이라고 합니다.

또한, “Grand Theft Auto V” 비디오게임이나 지금 매우 유행하는 GTA 게임이나 많은 영화나 드라마들은 극도의 성적 묘사, 살인, 강간, 고문, 신체절단 등을 아무렇지도 않게 정상적인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두뇌를 온통 쇠뇌 시킨다는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2007년에 이러한 매체를 통한 폭력이 아동 폭력성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해 미디어 폭력



전뇌의 뉴런, 즉 두뇌의 중요한 기능들을 가지치기하듯 잘라내기 때문에 집중력을 저하 시키고 기억력상실, 주의력 결핍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 아동조사에 의하면 집중하지 못하는 어린이는 배울 수도 없다는 게 더 심각하며, 배우지 못하는 어린이들로 인해 특수교육(Special Ed)의 필요성 역시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8. 중독 증세

Rowan은 부모가 첨단기기에 집착하면 할수록 그들의 자녀들과의 유대는 깨어지게 마련이고, 부모와의 결속과 유대가 깨어질

발암물질 의심군’으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헬스캐나다와 제임스 맥네임은 2011년 10월에 다음과 같은 건강 위험 경고문을 발표했는데, “어린이들은 성인들보다 여러 가지 인자에 더 민감하다. 그들의 뇌와 면역시스템이 아직 미완성인 채로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른들에게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아이들도 그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맞지 않다”(Globe and Mail 2011).

또한, 2013년 12월 토론토대학 공공건강학부의 Anthony Miller 교수는 새로운 조사 결과에 근거해 전자파 노출위험은 2B-‘발암물질 의심군’보다 한층 더 높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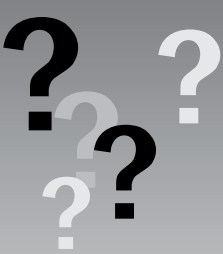
하는 어린이에게 미래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팀 단위의 접근과 어린이의 기술과용을 줄이기 위한 긴급한 방안이 절실한 때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휴대용 전자기계들로 인해 치명적인 위험을 겪게 하지 않으려면 0-2세 아이들에겐 절대로 어떤 휴대용 전자기계를 허락하지 마세요. 3-5세는 하루 1시간 이하로만 사용하게 하시고 6-18세들도 하루 2시간 이상은 절대 안 된다고 어린이와 청소년 expert 의사들은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휴대용 전자기계를 전혀 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차세대들을 무너뜨리고자 사방팔방에서 공격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어린이들이 사탄의 눈에 있는 가시인 것이지요. 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의무는 바로 우리 어른들에게 있기에 기도하며 그들을 다니엘 세대, 사무엘 세대로 키워나가는 저희 한명 한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신학교를 몇년전 졸업하고 부목사로 마땅히 갈 곳이 없어 현재 개척교회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개척교회가 설립되고 성장 부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는데 목사님의 조언을 필요로 합니다.
-다우니에서 신 목사

A: 갈수록 교회개척은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수없이 개척한 개척전도자입니다. ‘맨땅에 헤딩’하여 어렵게 시작해 작지만 건강한 교회로 성장 부흥해가는 교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You can do that!).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첫째 교인들에게 교회의 비전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회의 비전은 개척자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꿈이요 건축자의 손에 들려진 설계도감과 같은 것입니다. 달라스신학교의 오브리 팔퍼스 교수의 말처럼 “비전은 행해질 수 있고 또한 마땅히 행해야 할 미래에 대한 선포하고 도 도전적인 그림”입니다.

둘째는 개척동지를 10-20명 정도는 확보해야 합니다. 함께 교회비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동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동역자의 중요성에 대해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섬겨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명심하라. 당신 혼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동지를 찾아라. 없다면 만들라. 성경은 혼자서 고독하게 믿는 기독교에 대해 이야기 하는 바가 전혀 없다.”

불신자 전도로 유명한 새들배교회의 릭워렌牧사는 세례를 받는 새신자에

개척 비전 함께 이룰 동지를 찾으라

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우리교회에 끌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건물이나 흥미로운 행사들 때문이라는 대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저에 대한 놀라운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개척멤버 확보를 위해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진심어린 사랑과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개척의 동지를 만나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리고 루디아처럼 에바브라에게 빌레몬처럼 말입니다. 개척교회가 성장 발전해 나가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화 속의 명탐정 콜롬보처럼 수사가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특유의 큰 코를 큼큼거리며 반드시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건이 발생한 현장입니다. 처음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방법론은 통하지 않습니다. 빨리 사람을 모으려고 꿈수나 변칙은 실패의 깊은 나락으로 추락하게 될 뿐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비우고 정로로 가야 합니다.

둘째는 생각을 전환하고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급변하는 시대 21세기 구태의연한 사고로는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19세기 목사, 20세기 목사가 어떻게 21세기 교인을 가르칠 수 있는가? 누가 남아있겠는가? 먼저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언제나 개혁적이고 창조적이고 감동적인 생각을 창출해야 합니다. 시대의 개척자로 알려진 조용기 목사에게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냐고 묻는 후배에게 “Find need & Meet need! 필요를 찾아라 그리고 필요를 만족시켜라! 교회는 사랑입니다.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셋째는 자신을 불사르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영원한 가치, 위대한 일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자입니다. “초의 능력은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데 있습니다. 일찍이 선교의 거장인 켈렌도르프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복음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 땅을 지금부터 나의 조국으로 삼으리라.” 이 땅이 교회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바쳐 섬겨야 할 사명의 터전입니다. 교회개척에 대한 금지를 가지고 교회 개척을 위해 당신 자신을 불살라야 합니다.

믿고 맡길수 있는 「하나님의 학교」
N.J.United Christian Academy
중·고등학교 (6학년~12학년)

당신의 자녀를 책임지고 훌륭하게 크리스찬 리더로 키우겠습니다. -NJUCA 교사 일동-

개교 10주년을 앞두고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훌륭한 크리스찬 미래 리더들을 좋은 대학에 많이 입학시키고 있습니다.



NJ 크리스찬 아카데미 수양관도 새로운 시설과 서비스로 성도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예약을 서둘러 주세요

NJUCA 교육의 특징

- 기독교 교육 이념에 기초한 지성(IQ), 감성(EQ), 영성(SQ) 교육
- 헌신적인 교사들에 의한 친밀한 학생관리 및 상담
- 특별활동 및 봉사활동을 통한 이타적인 인재 육성
- SAT, TOEFL 수업을 통한 명문대 진학 준비
- 한식과 중국식 음식을 제공하는 기숙사 환경

2014~2015학년 신입, 편입생 모집 중

- 대상 : 6th ~ 12th
- 인원 : 각 학년별 약간 명
- 전형 : 서류 및 인터뷰
- 개강 : 2014년 9월 5일
- 특징 : 국제 유학생에게 정식 I-20 발급

문의: (609)954-2900, (609)713-2121(영어)

www.njuca.org

73 Holmes Mill Rd. Cream Ridge, NJ 08514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미얀마의 고산 부족(Hill Tribes)



미얀마는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지리적인 위치와 또 독립심이 지나치게 강한 국민성 때문에 늘 고립돼왔다. 또한 1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종족들이 함께 살고 있어서 다수의 소수종족과 지배 종족인 미엔족(the Myen-과 거에는 버마인으로 불림) 사이의 분쟁과 갈등이 자주 있어왔다. 그 가운데 고산 부족들은 주로 미얀마 국경 외곽지역을 따라 난 울창한 산림지역에 살고 있는 반면, 지배계층인 미엔족은 이라와디(Irrawaddy) 강의 비옥한 평야에서 살고 있다. 대부분의 고산 부족들은 티벳-버마(Tibeto-Burman) 계통에 속하는데, 주로 중국 남부에서 이주해왔다. 미얀마에는 오랫동안 전쟁과 잦은 정부 교체, 쿠데타가 있어왔다. 오늘날까지도 버마군대는 사회경제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얻고자 투쟁하는 종족집단들을 군사력으로

통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버마군대는 소수 종족들과 평화협정을 맺고 휴전을 약속하면서 합당한 대우를 해 주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반란의 기미가 보이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퍼붓는다. 한 예로 1994년 5월 산(Shan) 주(州) 한 지역에서 만 17번 이상의 전투가 벌어졌다.

삶의 모습
산지 부족들은 산족(Shan)과 버마족의 영향을 받아 이중 언어생활을 하는 종족들이 많다. 예를 들어 무역을 할 때에는 산(Shan)어를 쓰지만 집에서는 자기들의 고유언어, 부족어를 여전히 사용한다. 주요 직업은 쌀 경작이다. 일부 부족들은 농사짓기에 적합한 산비탈에서 쌀을 재배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동 경작”(shifting cultivation)을 한다. 다른 주요 재배작물로는 옥수수, 면화, 담배, 양

귀비(아편)가 있다. 담배 공급량은 이 지역의 수요량에 미치지 못한다. 추산된 수치를 보면 세계적으로 유동되고 있는 불법 아편의 50% 이상이 산 주에서 생산돼 이 지역은 악명 높은 “황금의 삼각지”(Golden Triangle-히말라야 산맥 남쪽 기슭으로부터 흐르는 메콩 강의 흐름을 따라 중국, 미얀마, 라오스 국경이 만나는 지점을 ‘상(上) 골든트라이앵글’, 미얀마, 라오스 태국의 국경이 만나는 지점을 ‘하(下) 골든트라이앵글’이라고 함. 마약을 재배하는 ‘마약의 삼각지’로 알려져 있음-역자 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소규모 종족들은 자기 부족 내에서 완전한 자급자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곡과 평야지대에서 생활하는 다른 종족들과도 관계를 유지해야 했다. 이에 버마인들은 독립생존이 불가능한 이런 소규모 종족집단이 산 족과 무역을 막

기 위해 주요 무역로에 군대를 배치했다. 여러 세대를 거쳐 오면서, 부족들은 정부에 세금을 바치면서 각자 영토에 대한 영구적 권리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일부 종족은 “사오파”(saohpa, 세습영주)가 화려한 저택에 살면서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부당한 부를 축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금징수에 분개했고, 결국 그들은 모든 세금이 자신들에게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요구하며 “반봉건” 항쟁을 후원하기도 했다. 실제로 평민들에게 있어 정부는 화재, 기근, 홍수, 전쟁과 더불어 5대 구적(舊敵) 중 하나이다.

산지부족사회에서 족외혼-서로 다른 부족 간의 결혼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족내혼 즉, 자신들 집단 내에서만 결혼을 함으로써 혈통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전통적으로 부계

혈통을 유지하고 있다. 신앙 불교는 5세기에 미얀마에 들어왔으며 산지부족들은 불교신자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나트”(nats)라고 하는 악령을 믿는 전통신앙도 유지하고 있다. 사람들은 나트를 달래기 위해 평생 동안 애써야 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불행히도 산지 부족 가운데 극소수만이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의 일부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 가운데 사역하는 선교단체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중국교회 6만여 곳, 목사는 4500여명

지난 16일 열린 한·중기독교교류회 세미나에서는 중국교회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수치가 중국교회 관계자를 통해 제시됐다. 왕준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 부주석은 ‘중국 기독교 발전 기본정황’이란 주제강연에서 “중국교회 신도가 해방(1949년) 초기에는 30여개의 분파에 70만명에 불과했지만 현재 2500만명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선교학자들은 가정교회 신도 등을 고려해 중국 내 크리스천을 1억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왕 부주석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교회 6만여 곳 가운데 70%를 최근 새로 건설했다. 목사 4500여명, 장로 6000여명, 자원봉사자는 19만명에 달한다. 성경은 지금까지 6700만권을 인쇄했으며, 전국에 성경 발행점 7022곳이 있다.

신학교는 개혁·개방 후 1곳에서 지금은 22곳으로 늘어났다. 지금까지 1만4000여명이 신학교를 졸업했으며, 재학생은 3700여명이다. 현재 29개성, 자치구, 직할시에 중국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기독교 조직인 양회(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 중국기독교협회)를 두고 있다. 사회봉사를 위해 애덕재단과 사회복지부를 설립해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왕 부주석은 “과거 중국에선 ‘아편론(종교는 인민을 마취시키는 아편)’ ‘협조론(기독교가 제국주의에 협조했다는 설)’ 때문에 ‘기독교인이 많아지면 중국인이 적어진다’는 인식이 팽배했다”면서 “하지만 사회적 이미지가 점점 변화에 따라 지금은 ‘기독교인이 많아지면 좋은 공민이 많아진다’는 인식으로 변화했으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국 기독교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 총기 난사범 제압...하나님 은혜로 용기”

대학 내에서 총기를 난사한 범인을 제압해 대형 참사를 막은 대학생 존 메이스(26·사진)씨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간증했다. 그는 지

Internet News

난 5일 미국 시애틀퍼시픽대학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때 범인을 제압, 사상자수를 4명에 그치게 해 언론과 네티즌으로부터 ‘영웅’이라는 칭송을 받았다.

메이스씨는 최근 학교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나는 당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있었다”며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범인을 막을 수 있었고 다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언론의 찬사에 대해 “비극 없이 영웅이 나올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면서도 “내가 맞닥뜨린 총격범은 의문의 과물이 아니라 슬퍼 보이는 젊은 남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용서 받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희망했다.

그는 “저보다 더 많은 충격을 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면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 비극을 치유할 수 있다”며 많은 기도와 관심을 요청했다.

그는 또 “많은 분들이 제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에 놀랐고 감동했지만 앞으로는 이 모든 관심이 피해자들에게 집중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인터넷에서는 결혼을 앞둔 메이씨의 혼수 마련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이 시작돼 5만 달러 이상이 모금됐다.

영국성교회, 성직자 반기독교우정당 가입 금지

영국 성교회는 최근 주교 회의를 열고 성직자의 극우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성직자 규율 수정안’을 결의했다. 수정안은 다음 달 총회에서 이견이 없는 한 통과돼 효력을 갖게 된다.

영국 성교회가 금지한 정당은 인종문제에 대해 과격한 입장을 갖고 있는 영국국민당(British National Party·BNP)과 국민전선당(National Front·NF)이다. 영국 성교회는 “두 당은 공약과 성명서에서 인종차별색채를 명백하게 드러낸다”며 “이들의 가치관과 교회 가르침은 양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성직자가 그런 곳과 연관되는 것은 사역과 교회 평판에 악영향

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BNP와 NF는 현재 하원의원이 없는 극소 정당이지만 영국 성교회가 이들 정당에 대한 성직자의 정치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교회가 성직자 정당 가입 금지를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라며 “성직자들이 극우 정당에서 활동할 경우 성직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BNP는 성교회의 수정안 결의에 대해 “교회가 정치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북한, 선교사·기독교인 3명 억류 중

북한이 최근 미국인 에드워드 포울씨를 억류했다고 밝히면서 북한에는 현재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선교사와 밀려 매슈 토드씨 등 미국인 3명이 억류돼 있다. 미국인 3명이 동시에 억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배 선교사의 경우 억류된 지 19개월이 넘는 등 전혀 없는 강경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포울씨는 호텔에 성경을 남겨둔 채 출국하려 했다는 게 억류 이유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억류는 미국 당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겠다는 의도란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외국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경고나 추방이 아니라 억류 조치를 취한 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말 일본 정부와의 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에 합의하며 인도적 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런 가운데 억류자들의 상당수가 선교사 또는 크리스천이란 점도 눈에 띈다. 억류된 미국인 2명은 ‘선교 행위’ 때문에 북한을 나오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월엔 존 쇼트 호주 선교사를 같은 혐의로 억류했다 풀어주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중국 당국에서 활동하다가 억류된 김정옥 선교사 역시 비슷한 사례다. 김 선교사는 국가전복음교회와 간첩죄 등으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역시 간첩 혐의를 받은 배 선교사에게 15년형을 내린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 중형이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이 기독교 탄압에 더 강경하게 나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과연 북한의 대종교 정책 기조는 바뀌었을까. 전문가들은 남북관

계, 북·미관계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대학생선교회(CCC) 통일연구소 이관우 소장은 “남북한 관계가 원만했을 경우 외국인의 북한 내 종교 활동은 묵인됐을 게 사실이었다”며 “외국인의 개인적 예배나 기도 등도 허용됐고 실수든 고의든 성경을 놓고 가는 것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금은 남북관계와 북·미 사이가 경직된 상태다. 전에는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는 일이 지금은 통하지 않는 것이다.

김형덕 한반도평화변영연구소장에 따르면 북한 헌법은 표면적으로는 종교 자유를 인정한다. 그러나 외국인에 의한 선교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김 소장은 “외국인의 선교 활동은 철저히 통제하는 게 북한”이라며 “일례로 역사 교육에서 제너럴서먼호 사건을 매우 비판적으로 가르친다”고 말했다. 북한 학교에서는 토마스 선교사가 통역사로 승진했던 제너럴서먼호에 대해 외세와 종교의 침입 사건으로 가르치면서 현대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북한식 시장경제 개방을 표명했고 이른바 ‘외화벌이’에 도움이 된다면 종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감지된다. 이 소장은 “이미 북한 내에는 기독교 관련 외국 NGO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캐나다 국적을 가진 한인 크리스천들도 다양한 구제·섭김 사역을 하고 있다”며 “만약 북한 정부가 기독교를 더욱 탄압하려고 했다면 이들의 활동은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련의 기독교인 억류가 최근 중국의 종교정책과 맥을 같이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의 기독교인 억류는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가 한국 선교사를 대거 추방해온 흐름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며 “중국 공안과 북한 보위부가 같은 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 탈출 행렬이 중국과 접경지대에서 발생하고 있고 중국 내 한국 선교사들이 탈북자를 돕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중국과 북한이 공동 대처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1989년 김일성종합대학에 종교학과를 설치해 이른바 ‘종교일꾼’을 양성해 왔고, 김정일정치군사대학에서도 대남 전략의 일환으로 기독교 등 종교를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독교 단체인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을 비롯해 불승교회와 절골교회 등이 설립됐지만 기본적으로는 북한체제 내에서 종교가 작동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 본교 소개 및 특전 ●

-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On Campus Courses ●

2014 가을학기 수업 안내

Sept 29-Oct 3(9월 29 -10 월3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Oct 6-10 (10월 6-10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 / 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 디자인)

***과목과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Off-Campus Courses ●

Sydney, Australia

• July 28-August 1 (7월 28일-8월 1일)
DI8180 Cross-Cultural Leadership Development / Dr. Bruce Dipple

Los Angeles, California

• Sept 8-12 (9월 8일-12일)
IM 830 Islam/ Dr. Daniel Lute

Phnom Penh, Cambodia

• Oct 27-31(10월 27일-31일)

Seoul, Korea

• Nov 3-7(11월 3일-7일)
IM 830 Islam/ Dr. Todd Bradley

Online Courses (8주간 온라인 강의)

Aug 18-Oct 10 (8월 18일-10월 10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 (교차문화 의사소통)

Oct 13-Dec 5 (10월 13일-12월 5일)

DI 8520 World Religions(세계종교)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36)

정 성 구 박사 |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종신대명예교수



기독교 정치 및 성경 묵상을 위한 저서들

1)기독교 정치에 관한 저서들

카이퍼는 평생을 기독교 정치가로 살았다. 그러므로 그는 일간지 De Standaard지를 통해서 매일 같이 논설을 쏟아내면서 반혁명당의 진로를 제시하고, 지지자들을 독려하고 힘을 모았다. 많은 논설과 소책자들이 있지만 두드러진 기독교 정치 교과서로는 두 권을 말할 수 있다.

(1)우리들의 계획(Ons Program Met Bijlagen 1878) 카이퍼는 반혁명당의 총재로서 국가 경영과 당의 원리를 제시한 책이다. 인류 역사에 카이퍼처럼 확실하게 정당의 꿈과 비전을 방대한 책으로 낸 일이 없다. 여기서 카이퍼는 ARP정당의

기초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이다.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수립하고 순종하는 것이 정당의 목표라는 것이다. ARP정당의 당수인 카이퍼는

기독교 정치의 최전방에 서있으면서 논리와 정책을 개발했다.

(2)반혁명 정치학(Antirevolution Staatskunde, met Nadere

기에 집필한 것이다. 이 책은 ARP 정당의 정책을 자세히 해석한 것이다. 1권은 반혁명 정치학 원리를 썼고 제 2권은 그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다루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인이 되심으로 그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정치할 것을 말했다. 그는 이미 15년 전에 수상의 일을 했고, 이제는 후학들에게 반혁명의 정치학의 원리를 계승해야 하겠다는 취지에서 쓰여진 것이다. 또한 1904년에 출판된 기독교 정치학(Christelijk Politiek)도 작은 책이지만 카이퍼의 정치사상 이해에 도움을 준다.

자료들은 설교가 되고 논설이 되고 그리고 책이 되어 나왔다. 어떤 이는 카이퍼가 일반은총을 전개함에 있어서 성경적인 증거가 약하다고 한다. 그러나 카이퍼는 성경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적용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그가 성경 묵상자료로 쓴 것만 2000편이 넘는다. 그러므로 카이퍼는 말씀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카이퍼의 묵상자료는 많은 책으로 나왔지만 “말씀으로부터”(Uit het woord)의 시리즈 성경연구가 1872년부터 1886년까지 10년 동안 6권으로 출판되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하루를”(Dagen van Goede boodschap)시리즈에 제 4권의 저서가 나왔다. 본래 이시리

히 썼던 원고를 책으로 만들었다. 또 이런 묵상자료들이 모아져서 “성경의 부인열전”(Vrouwen uit de Heilige Schrift, 1897) 등이 출판 되었다. 후에는 “신약의 부인열전”, “구약의 부인열전”으로 나누어서 출판되기도 했다. 카이퍼의 저술범위는 실로 다양하면서 목회자들의 설교에 유익한 자료를 제공하고 성도를 깨우는데 목적이 있었다.

특히 카이퍼의 성경 명상 자료를 단행본으로 나온 것 중에는 “하나님께 가까이”(Nabij God te Zijn, 1908)는 가장 유명하다 시편 73:28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쓴 이 성경묵상 자료는 영어와 한국어로도 번역되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카이퍼의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인생과 세계에 대한 눈을 뜨게 하고 오늘의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주는 묵상자료이다. 아마 카이퍼의 성경 명상자료 중에 대표적인 저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작품과 맞먹는 경건서적이다.

(다음호에 계속)

반혁명 진로 제시하고 지지자 독려하는 기독교정치교과서 저술 2천편 넘는 성경묵상자료, 설교자료 및 하나님중심 세계관 제시

2)성경묵상을 위한 저서들

카이퍼는 신학자이자 목사였으므로 그는 매 주일 De Heraut지에 성경묵상 자료를 쏟아놓았다. 이

즈의 제목을 카이퍼가 열왕기하 7:9에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었다. 이런 주제아래 고난절, 부활절, 송구영신, 성탄절, 감사절 등에서 De Heraut지에 부지런

가정사역 칼럼



외 도

금정진 사모 (FBM 디렉터)



한인 가정의 배우자의 부정(외도)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가정문제 상담기관인 기독교 상담소가 200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상담을 의뢰한 한인은 총 1106명으로 이 중 420명이 ‘부부갈등’ 문제를 제일 많이 호소했다.

부부갈등을 세부 사항별로 분석해보면 ‘배우자 외도’가 116명으로 한인들의 단일 문제로 1위를 차지했다. 배우자 외도 문제는 생명의 전화(121건)나 가정상담소(82건)의 2008년도 상담통계에서도 높게

나타나 한인사회 내 불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불륜(외도)을 저지르게 되는 원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불륜의 원인은 부정한 배우자가 성격 장애, 성 중독, 발달상에서의 변화(위기), 무의식적이거나 비현실적이거나 전담되지 않은 기대, 유혹이 있을 때 등이다. 또한 성실한 배우자가 결혼생활에서 기대와 자아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반응할 때와 동반 의존성(codependency) 등의

문제를 가졌을 때다.

남성이 부정을 저지른(외도한) 경우, 상대방 여성은 심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다. 계속되는 부정적인 상상과 우울한 감정을 느끼며 식사나 수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녀는 부정한 배우자에 대해 넓은 양면적인 감정을 경험한다. 한순간에는 분노를 느끼고 다른 한순간에는 친밀함과 열정적인 성적 욕망을 종종 느낀다. 그리고 그녀는 아마도 그 상대방과 전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러한 감정의 소용돌이 기간 동안 그

남편은 외도가 이러한 분노와 고통을 일으킬 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과 혼란함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여러 과정을 지난 후 신실한 배우자가 부정한 배우자를 다시 받아주기로 결정했을 때, 외도로 불화가 생겨난 그들에게 몇몇 중요한 치유작업이 여전히 남아 있다.

외도를 저지른 자가 간단히 외도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희생자의 감정을 가라앉히거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외도한 남성들은 회복을 위해 어떻게 얘기할 것이다. “그래, 나는 외도를 했어. 그렇지만 그런 이제 끝났고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했으니 다시 예전처럼 살자”라고... 그렇지만 희생자는 몹시 불안정한 상태에어서 그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한다. 그녀는 확실하고 반복되는 양심의 가책이 있는 말들을 상대방으로부터 듣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의 부정적함과 불성실로 인해서 그녀가 느끼는 미칠 듯 한 고통스런 감

정에 대해서 알아주기를 바란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신뢰를 다시 쌓는 과정을 시작해야 하고, 외도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고 같은 이해를 해야 하며, 외도뿐 아니라 결혼생활에서 드러나는 다른 문제들을 확인하고, 현재와 미래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도록 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도록 하며 지속적으로 용서의 과정을 걸어가야 한다. 그리고 상호간에 성적으로 만족시켜주고 되살려주는 성치료(sex therapy)를 받고,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해 할지에 대한 결정과 외도로 인해 무너진 그들의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

배우자의 부정(infidelity)은 결혼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파괴적인 경험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부정을 저지른 사람과 희생자인 배우자도 개인 상담과 가족 상담을 받도록 해야 한다. 외도는 결코 더 나은 결혼생활

을 위해 옳은 길도 좋은 길도 아니다. 그러나 외도와 관련된 가정은 지독스럽게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외도로부터도 유익을 얻을 수 있다. 한 내담자는 “외도사건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는 “우리 안에 교제, 이해, 애정 그리고 결속력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키워가게 되었다”라고도 이야기 한다.

또한 신실한 배우자 치료의 마지막 목표는 배우자에 대해 종속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 시간을 보내며 즐길 수 있도록 되는 것이다. 즉 배우자가 다시 부정을 저지름을 걱정하는 것으로 염려하지 않고 자신을 찾는 것이다. 곧 하나님과 함께 하되 홀로 살아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회복하는 건강한 홀로서기를 통해 부부가 함께 서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셈이다.

이메일: familykum@gmail.com

<2면에서 계속>

그들도 선거 직전까지는 결과를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하였지만 막상 결과를 받아들이는 충격이 컸다. ‘왜 하필 우리만?’ 떨어진 이가 적었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선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더 힘들었다. 백 마디 말로 위로한들 그 서운한 마음을 다 감쌀 수 있겠는가? 처음에 힘들어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 주 두 주가 지나면서 모두가 평정의 마음을 되찾았다. 교인들이 그들을 집중적으로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아픔을 이겨나갔다. 목사 역시 몇 번을 찾아가 그 마음들을 다독였다.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내린 결론. ‘신앙 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받아

들이자!’ 그리고 보니 전에 낙선한 네 명이 이번에 모두 당선되었다. 그들도 참 힘든 시간을 보냈었지만 굳굳이 참아 견뎠고 결국 모두 당선되었다. 아픔만큼 성장하면서, 다시 이번에 낙선한 이들을 위해 더 기도한다. 부디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자 되기를!

푸/ 른/ 초/ 장

<4면에서 계속>

그런데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책임질 사람이 분명히 따로 있는데 책임을 대통령에게 확대하여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라고 말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손자가 식초를 먹었는데 왜 내 이빨이 시려야 합니까? 손자가 기 때문입니까?

책임 전가를 잘못하는 것은 엄청난 오류를 범하는 것이고 책임소재를 흐리는 질서를 혼란케 하는 범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

람은 개인이든 교회이든 국가이든 미숙한 수준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도 화목하고 국가와 국민도, 국제관계도 평화스러워지려면 남을 탓하기에 앞서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책임질 줄 아는 신앙 인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현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2014년 달력주문 받습니다.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다 그의 손에 (1) 파스퇴르의 믿음

‘파스퇴르 우유’로 널리 알려진 위대한 창조 과학자 루이 파스퇴르(Louis Pasteur, 1822-1895)는 아마추어 미생물학자였다. 원래 전공이 화학이었는데 현미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은 미생물학의 아버지가 되었다.

‘파스퇴르 우유’는 그의 연구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이다. 버터밀크(butter milk)에서 추출한 미생물이 신선한 우유를 시름하게 만들지만 열을 가한 추출물

가 된 세균이론(germ theory)의 근거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지고 있다.

파스퇴르의 여러 실험들 중에서도 가장 스릴 넘치는 것은 탄저병 백신(anthrax vaccine) 효과를 직접 대중에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탄저병은 최근에 테러 목적으로 우편을 통해 배달되기도 했던 생물학적인 독극물이다. 당시 수의사들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작은 것이 큰 동물들을 죽일 수

려나 그 다음날 이 실험을 요구했던 수의학회지의 편집장으로 부터 전보가 왔다. “백신 맞은 양 중에서 아픈 양들은 완전히 회복되었음. 백신 맞지 않은 양들은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음. 경탄할만한 대성공임.” 이 후로는 아무도 세균이론에 대해 심각한 도전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파스퇴르의 광견병 백신(rabies vaccine) 개발은 뜻하지 않게 성공을 거두었다(1885년). 한 아홉 살 소년의 엄마가 파스퇴르를 급하게 찾아왔다. 자기 아들이 미친개에 물려 죽게 되었으니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아직은 그 백신이 동물실험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쓸 수 없었다. 그러나 간곡한 청에 못 이겨 그 아이에게 주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10일 동안 파스퇴르는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자기 일도 제쳐두고 그 아이의 침상 곁을 지켰다. 후에 그 소년은 세계적인 백신연구기관인 파스퇴르 연구소의 연구원이 되었다.

파스퇴르는 화학분야에서도 획기적인 공헌을 하였다. 생물체에서 추출한 주석산(tartaric acid)이 녹아있는 용액은 빛을 회전시키는데 반해 실험실에서 만든 주석산은 똑 같은 화학적

연구할수록 나는 더욱 더 깜짝 놀랄 창조자의 손길 앞에 서게 된다.” 가장 완벽하게 그의 전기를 쓴 그의 사위는 그를 ‘하나님과 영원에 대한 절대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영국의 유명한 외과의사인 파켓(Dr. Stephen Paget)은, “그의 영적인 삶이 과학자로서의 경탄할만한 삶에 결코 뒤지지 않는 한 사람이 여기 있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위대한 과학자요 진실한 크리스천, 진정한 창조과학자였다.

파스퇴르는 현미경을 통해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많은 작은 생명체들을 보았다. 당시 자연주의자들은 그것들이 저절로 생겨난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는 자연 발생(진화)설을 거부하고 결정적인 S-플라스크(Swan-neck flask) 실험을 통해서 생물학의 위대한 이론을 세운다. 과학 교과서에서 배우는 생물속생설(biogenesis, 生物叢生說)로 생명체는 무생물이 진화하여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명체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이다(1862년). 위키백과에 의하면 파스퇴르가 이 실험에 사용한 S-플라스크의 고기집은 아직도 부패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저온살균법 오픈·세균이론으로 여러 백신들 발명 진화설 거부 S-플라스크실험 통해 생물속생설 증명

은 그렇게 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관찰하였다. 이 열처리 과정이 그의 이름을 딴 ‘파스퇴르 살균법’(pasteurization) 일명 저온살균법이다. 이 살균법은 높은 열을 가하면 품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나 맥주의 살균 등에 중요한 과정으로 사용되고 있다. 파스퇴르의 친구들은 이 살균 특허(US patent 135,245, 1873년)로 그가 큰 부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그는 자기의 발견을 기꺼이 사회에 돌렸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할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저온살균법이 성공을 거둔 이후 파스퇴르는 프랑스의 양잠(누에치기)업을 초토화시킨 질병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파스퇴르는 병균(germs)이 누에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는 전염되어있는 모든 누에와 뽕나무들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병균에 감염되지 않은 알들을 골라 프랑스의 양잠업을 다시 일구게 하였다. 이 발견은 뒤에 소개할 조셉 리스터(Joseph Lister)의 실험과 더불어 현대의학의 기초



파스퇴르의 근본적인 신뢰

진화론의 인기가 치솟고 있을 때에도, 파스퇴르는 생명체들은 생명체에서만 생겨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실험을 하였다.

없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파스퇴르의 생각을 비아냥거리고 있었다. 파스퇴르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25마리의 양들에게 먼저 백신을 주사하고 후에 탄저균을 주사했으나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그러나 백신을 맞지 않은 25마리의 양들은 다 죽고 말았다.

탄저병 백신을 공중 앞에서 실험한 다음 날 신문은 백신을 맞았지만 몇 마리의 양들이 아픈 것 같다고 보도를 하였다. 파스퇴르는 식사를 할 수 없었다.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

구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회전시키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결국 그는 화학적인 구성성분은 같지만 구성 원자들의 위치가 서로 다른 광학적 이성체(optical isomer) L-형과 D-형이 있음을 세계 최초로 보고하여 영국학술원(Royal Society)에서 메달을 받기도 하였다(1856년).

이런 놀라운 업적과 인간성만이 파스퇴르를 위대하게 만든 것이 아니다. 그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였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자연을 연구하면

이 파스퇴르의 역사적인 실험 결과를 신뢰하고 여기에 근거하여 또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면 또 다른 창조과학자가 있었는데 다음 칼럼에 계속된다. 진화론적인 믿음은 과학의 진보에도 방해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진화론의 도움으로 과학이나 기술이 발전한 예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모든 것은 다 창조자의 손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앞으로 이어질 칼럼들은 현대 크리스천들이 알아야 할 생물과 관련된 주제들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 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 의 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soul)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breath)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욥12:7-10, 개역개정).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성품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지식과 지혜의 차이

알프레드 노벨(Alfred Nobel 1833-1896)은 어느 날 신문을 읽다가 깜짝 놀랐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자신이 사망했다는 기사였다. ‘죽음의 장사꾼, 숨지다(The Merchant of death is dead)’라는 제목의 이 부고 기사는 다이내마이트를 발명한 자신을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대가로 부자가 된 ‘죽음의 장사꾼’으로 비하하고 있었다.

노벨은 자신의 지식을 축적해 오랫동안 실험을 기울여 만든 다이내마이트가 가까운 생명들을 죽이는 살상무기가 된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다이내마이트를 발명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자신의 전 재산을 노벨재단의 전신인 스웨덴 과학아카데미에 기부함으로써 노벨상이 탄생하였다. 노벨상은 무엇보다 자신의 지식으로 세상에 유익을 끼친 ‘지혜로운 지식인’을 기리고 격려하는 상으로 지금까지 내려온다. 지혜는 지식과 다르다. 지혜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능력’(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인데 반해 지식은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또는 정보 그 자체이다. 그러니 지혜는 타인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피처럼 흐르는 아름다운 지식인 셈이다. 아무리 많은 정보와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거나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없다면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

아프리카에 ‘스프링폭스’라는 산양이 사는데 이들은 아무 이유 없이 한꺼번에 몰려서 달리다가 벼랑 끝으로 떨어져 몰사하는 ‘알 수 없는 동물’로 더 유명했다. 동물학자들의 연구결과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 스프링 폭스는 수백에서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 살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양들은 앞쪽에 있는 양들이 풀을 다 먹어버리거나 밟고 지나가 버려서 영양식이 부족하여 어떻게든 앞으로 나서려는 본능이 생겨났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수천 마리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조금만 마음에 앞의 양을 밀게 되는데 뒤에서 밀린 양들은 걸음이 빨라지다 급기야 뛰기 시작하고 그러면 뒤에 있는 양들은 앞의 양들이 뛰는 것을 보며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한가하게 풀이나 뜯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덩달아 뛰어간다. 그러다가 벼랑 끝에 다다르면 이때는 이유도 없는 경주를 멈추지 못하여 모두가 떨어지고 만다는 것이다.

우리시대의 교육을 보고 있으면 마치 스프링폭스의 안타까운 경주를 보는 듯 하여 답답해진다. 어려서부터 지식을 쌓느라 몰두하지만 왜 지식이 필요하며 타인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지 성찰하지 않고 그저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 성공과 물질만능주의를 좇아 헛헛한 경주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분별하는 지혜가 없어서다. 분별력은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을 기초로 하여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으로 올바른 생활과 건강한 시민정신 도덕적인 행동을 위한 토대가 되는 덕목’이며 옳고 그른 지식을 분별하는 능력이 지혜이다. 그러므로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지식을 분별하여 기르는 힘이 바로 지혜의 성품에서 시작된다.

그동안 우리는 새로운 지식만 강조하는 ‘지식공화국’에 살았다. 많은 지식으로 좋은 스펙을 쌓고 그 스펙이 다시 좋은 직장을 보장하는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며 달렸다. 그 결과 세계에서 우울증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 OECD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고 행복지수가 꼴찌인 나라, 최근에는 황혼이혼율 1위, 패륜 범죄율 1위라는 오명을 쓴 나라로 만들었다.

지식에 사명이라는 본질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좋은 성품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사람을 지혜의 성품을 가진 지도자라고 말한다. 지혜는 어렵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다. 성인이나 갓추는 거창한 성품이 아니라 내 주변을 나의 지식으로 좀 더 행복하게 밝히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바로 지혜이다 우리 주변에는 비록 적은 지식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주중한 지혜의 사람들이 많다. 그런 좋은 성품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지혜자’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 ① ② 하나님의 구원계획 구역 편, 신약 편 ③ 칠십이레 ④ 지금 이 시대의 말씀
⑤ 하나님의 구원계획 도표 ⑥ 다니엘 ⑦ ⑧ 꼭 읽어야 할 말씀 요한계시록 상하



신·구약과 예언서인 다니엘서, 계시록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성경 세미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주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강사: 라흥채 목사 ◎장소: 뉴욕 제자들교회 교육관
◎일시: 매주 목요일 저녁 8:30 ◎전화: 718-224-1993, 917-968-1024



▲한국과 일본에서 세미나 인도하는 라흥채 목사



라흥채 목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학사)(1962. 3-1968. 2)
미국 '테네시' 성유회에서 13년간 근무(1972. 5)
미국 휴스턴 신학교(1986. 7)
미국 베다니 신학교 석사과정 수료(1992. 6)
미국 베다니 신학교 박사과정 수료(1993. 6)
미국 베다니 신학교 신학박사(Ph.D)(1996. 6)
뉴욕으로 이주, 뉴욕민간재교회 설립(1996. 9)
뉴욕제자들교회 담임목사(2014. 현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분의 방법대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성경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이 회개하며 올바른 진리에 눈과 귀를 열 때입니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때가 곧 도둑같이 임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때가 매우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계획**” 도서 시리즈와 세미나를 통하여서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뉴욕제자들교회 주소 : 39-50 Douglaston, Pkwy., Douglaston NY11363

구입처 뉴욕제자들교회 또는 각 지역 서점

동부교계 기사판

east

퀸즈장로교회 어린이 찬양집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어린이 찬양집회 "Jesus is my Super Hero, Part2"가 6월 21일(토) 오후 7시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교회 소속 어린이 경배찬양팀인 '하람예찬(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 주관으로 지난해에 이어 제2회로 개최되는 본 집회는 3세부터 12-13세 청소년들로 구성돼 있다.

▲문의: (718)886-4040

'창작클리닉 토요 문학의 길'

광성회 권사(프라이미스교회)가 인도하는 '창작클리닉 토요 문학의 길'이 6월 21일(토) 오후 3시 코리안커뮤니티센터 강당(플러싱 159가 노던블라바드)에서 열린다. 이날 내용은 △시문학예술 방법론 △에리히 프롬의 소유와 존재론을 바탕으로 동서양 시 비교 △참석자간의 자작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일인당 회비 10달러.

▲문의: (646)283-5658, 241-3747

NJUCA 중고등학교 학생모집

뉴저지유나이티드크리스천아카데미(NJUCA) 중고등학교(이사장 신정하 장로)가 2014-2015학년도 신입, 편입생을 모집한다. 6학년 부터 12학년까지 기독교 교육이념에 기초한 지성, 감성, 영성 교육을 목표로 한다. 개강은 9월 5일이며 유학생에게는 1-20비자가 발급된다.

▲문의: (609)954-2900, 713-2121

NC지역 목회자 "쉬면서 목회하자"

가족연합수련회, 강사 황성철, 송성섭, 최동갑 목사

노스캐롤라이나(NC)지역 목회자 가족연합수련회가 지난 2일부터 사흘간 머틀 비치에서 열렸다. 약 35명이 참석한 이번 수련회는 황성철 목사(그린스보로 주님의교회 담임), 송성섭 목사(샬롯남부교회 담임), 최동갑 목사(랄리제일침례교회)가 강사로 섰다.

먼저 황성철 목사는 엘리야의 탈진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그의 투쟁도 다 받아주시길 뿐 아니라 사정을 이해하시고 그 사정에 눈높이를 맞추어 위로해주셨으며 다시금 회복케 하셔서 새 역사를 감당케 하셨다" 말했다.

두 번째 강사 송성섭 목사는 "너

무 열심히 있는 종들이 쉴 줄을 몰라 탈진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임을 다시 깨우쳐 주셨다"고 역설했다.

마지막 최동갑 목사는 "골목 많고 낙심하기 쉬운 하나님 사역이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함으로 시련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모임 자체가 기쁨이요, 함께 가는 목회 길에 동지로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얻었다며 내년에 더 많이 참석하기를 다짐했다.

(기사제공: NC교협)

필라 안디옥 장학기금 수여식

지난 6월 8일 필라안디옥교회(담임 호성기 목사) 장학재단(Antioch Scholarship Foundation, ASF)이 지난 8일 장학기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에는 한인학생 7명을 포함해 18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동 장학기금은 지난 1999년 OICC(One In Christ Church)를 기초로 크리스천 리더십 양성과 다문화 및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제정된 것으로 안디옥교회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오픈해 호평을 받으며 자리 매김하고 있다.

안디옥 장학생은 우수한 성적을 가진 고등학교 졸업생들로 각 1천

달러씩 받게 되며 1999년 이후 200여명의 학생들에게 지급됐다.

(기사제공: 필라안디옥교회)



호성기 목사(왼쪽)가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감성의 설교로 웃고 울려라"

뉴욕교협 목회자세미나, 강사 고훈 목사

뉴욕교협(회장 김승희 목사)이 주최한 2014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강사 고훈 목사(안산제일교회 담임)의 목회자 세미나가 지난 16일 금강산 연회장에서 열렸다. 이날 10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참석해 감성 넘치는 고훈 목사의 강의를 경청했다.

고훈 목사는 한국 교회가 WCC 이후 더 분열됐으며 세월호 사건 역시 분열을 가져왔다고 그러나 어려움을 중에서도 장로교 합동과 통합이 연합해 제작한 CD와 고훈 목사가 쓴 소책자 시 작업강좌집을 소개하고 뉴욕교협이 복사에 나누기를 부탁했다.

시인 이기도 한 고 목사는 "성경은 비로 설교를 준비하는 것처럼 시에서 영감을 얻으면 설교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설교로 교인들을 웃기거나 울려야 한다. 웃으면 엔돌핀이 나오지만 울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말하고 감성적 설교의 필요



고훈 목사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에 대해 강조했다. 고 목사는 시인다운 감성으로 "성

에 대해 강조했다. 고 목사는 시인다운 감성으로 "성

공의 가장 큰 기본기가 고난/역경"임을 강조하고 "역경지수가 높을수록 성공지수가 높다"며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것에 빗대어 설명했다. 고 목사는 "물론 비랑 끝에서 밀지 않으면 독수리는 날지 않지만, 독수리 안에 날개가 있기에 날 수 있다. 우리 안에에도 날개/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또 높은 상수리나무의 열매는 너무 작다며, 하나님을 높일수록 나는 작아지는 겸손과 작은 것에서 나오는 역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한 성공이란 말은 비성경적이며 성장은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충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 목사는 "죄송합니다"라는 자작시를 낭송하고 안산제일교회에서 협력 파송한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간증하기도 했다.

이날 총무 장경태 목사의 사회로 김희복 목사의 기도, 최승렬 목사의 마침기도로 세미나를 마쳤다.

(유원정 기자)



청교도들이 세운 올드더치 교회 앞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청교도 거장들 설교 및 풀핏 발표

제4회 청교도복음연구회세미나, 올드더치교회 방문

제4회 청교도복음연구회세미나가 "청교도와 설교"라는 주제로 지난 14일 테리타운에 소재한 슬리피 할로우 올드더치교회(The Old Dutch Church of Sleepy Hollow, 1697년 설립)와 은혜와사랑교회(담임 최기성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 강사는 김필식 목사(영림교회 담임), 최기성 목사, 이창종 목사(동서교회 담임), 김경옥 원장(KAM 가정사역원) 등 4명이 맡았다.

첫 강의를 "리처드 벅스터의 목회적 설교에 대한 소고"로 김 목사는 "어렵고 힘든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목회자들이 설교하기가 힘들다"며, "벅스터는 깊은 말씀의 상고를 통한 영적 통찰력으로 목회자들의 내면에 관한 영적 진단과 자가치료를 알려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교도 3세대인 벅스터의 설교론에 대해 "설교자 자신이 은혜를 받고, 인내하는 자기 성찰과 확실한 교리를 가르치며 철저히 삶의 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성 목사는 "영혼을 살리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분석 연구"에서 "에드워즈는 영성과 지성과 삶이 어우러져 통찰력 있는 청교도 신학자"라며 에드워즈의 생

애를 소개하고 "주해적 다리와 신학적 다리를 건너 적실성 다리 놓기, 성령의 역사를 통한 변혁적 다리까지 목회적 상황화의 적용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창종 목사는 "진리의 불꽃같은 설교자 찰스 스펔"에 대한 강의에서 설교자의 열정, 영성의 사실 요인, 영적적 진리의 선포 방법, 진리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설교자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D.L. 무디와의 동역, 기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설교자의 목표는 성도의 회심이나 교회부흥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돼야 한다"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속에 진리의 불꽃을 담은 설교자가 되자"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경옥 원장은 "청교도 설교와 풀핏 인테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단을 의미하는 풀핏은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위치가 바뀐 것처럼 예배학과 신학의 문제"라며, 발코니식 풀핏, 풀핏을 중심한 신앙생활, 낮아지는 풀핏에 대해 설명하고 "설교 준비자는 하나님께서 풀핏 앞에 세운 자신의 임무를 영광스럽게 경의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원정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1부: 오전 9:00 주일예배2부: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6:00(월-토) 금요기도회: 오후 8:30 Tel: (718)358-6225, Fax: (718)762-468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h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성경강좌: 오후 8:00 금요성경강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ang.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여) 수요성경강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201)342-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chungkilaee@thco.net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여) 수요성경강좌: 오후 8:00 금요성경강좌: 오후 9:00 금요기도회: 오후 8:30 Tel: (718)733-7387, Fax: (718)621-2404, Flushing NY 11358 chungkilaee@thco.net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여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금요성경강좌: 오후 9:0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516)333-1757, Fax: (516)746-4084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6:00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461-7835, CP, (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ioch.com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저녁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Website: nyibc.org Tel: (718)279-2757, 2758, Fax: (718)279-1823 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WM여예배: 오후 1:30 화요성경강좌: 오전 10:00 수요성경강좌: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Tel: (718)639-3021, Fax: (718)507-6376 71-1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 3주)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영여예배: 오전 9:45 창원년성경강좌: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예배: 오후 12:30 금요성경강좌: 오후 11:30 수요찬양모임: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여예배: 오전 9: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plus.org Tel: (516)277-1103, Cell: (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km@gmail.com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동사목사: 박준열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영여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45 Tel: (718)482-7788, Cell: (917)349-5631 211-06 48th Ave, Bayside, NY 11364 www.nakwonchurch.org	에벤에셀선교교회 담임목사: 최창섭 주일1부예배: 오전 10: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718)570-5858 220-16 Union Turnpike Bayville NY 11364 http://emcny.us/	에사라교회 담임목사: 손환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영요성경강좌: 오후 5:00 영여예배: 오후 1:00 Tel: (718)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ma Rd, Manhasset, NY 11030	킨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o.org	킨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516)277-1103, Cell: (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km@gmail.com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PARA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전 11:3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종교기도회: 아침 7:40 영.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정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여)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선교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 2, 3, 부 스터디원 설교) Tel: (595)21-574-985 E-mail: haninrk@hotmail.net Cervantes NC, 1001, Asuncion-PARAGUAY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영여)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찬양: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www.hawaiii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독립교회 10년새 5배 성장 교단정치에 염증...탈퇴 잇달아

경기도 A교회는 최근 교단을 탈퇴하고 국제독립교회연합회에 가입했다. 고소·고발을 일삼는 교단 정치에 염증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 교회 담임목사는 “신학교 및 교단 선후배들의 위계질서와 부정부패에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영남지역의 B교회도 “교단 내 불합리한 행정처리가 많아 회의가 들었다”며 교단탈퇴 공고를 냈다. 교단의 간섭을 받지 않은채 홀로서기를 하거나 독립교회연합회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크게 늘고 있다. 12일 현재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회장 신상우 목사)와 국제독립교회연합회(회장 차군규 목사)에 가입한 독립교회는 모두 2710곳이다. 이는 2004년 3월 530곳 보다 5배 이상 증가한 수

치다. 독립교회연합회는 일반 교단보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회비 부담도 거의 없다. 기존 교단과 마찬가지로 신학생을 대상으로 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주고 있으며 교단의 정치성을 배제하고 회원교회의 친목과 국내·외 선교, 목회정보 공유 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독립교회가 크게 늘어난 가장 큰 이유로 ‘교단정치’를 꼽는다. 한 목사는 “교회가 조금만 성장하면 노후나 교단의 간섭이 시작된다”며 “소위 정치목사에게 휘둘리는 것이 싫어 독립교회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보다 자유로운 교회운영을 위해 독립교회가 되는 경우도 있다. 3년 전 독립교회로 새 출발한 C목사는

“우리교회는 목사·장로 임기제를 도입했다”며 “이외에도 몇가지 실험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교단에 속한 상태에서 운영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사역하는 교회가 보수교단 소속이었던 50대 여성목사는 “여성에게 목사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헌법이 싫어 독립교회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 교회가 교단에 속한 상황에서 애로사항도 없지 않다.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교회의 경우 자칫 이단으로 몰리곤 하기 때문이다. 최근 교단을 탈퇴한 교회 목사는 “전도를 하다보면 ‘교단이 어디냐’고 묻는 사람이 적지 않다”며 “아직 한국교회에선 장로교, 감리교 등 교단이 중요해 독립교회라고 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

다 본다”고 말했다. 또 청년 연장이나 목회세습을 위해 교단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교회연합회에 가입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도 간혹 나타난다. 연합회가 이런 문제들을 간섭하지 않고 개 교회 정관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교계에서는 독립교회연합회가 기존 교단과 불협화음 없이 조직을 활성화해 교단 중심의 한국교회에서 새로운 변화의 주역이 될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전국기독교수련회 회장 이병원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이미 미국 등 전 세계에서 독립교회들이 크게 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은 기존 교단들이 군림하는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교단을 운영하는 목회자와 교단 내 제도들이 좀더 낮아지고 섬기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자유로운 목회를 원하는 독립교회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천지, 구원과 중국 진출 경계 한중 교회 연대로 이단 차단해야

한·중 교회 지도자들은 16일 서울 세라톤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한·중기독교교류 세미나’를 개최하고 양국 교회의 역사와 상호교류의 의미,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한·중 교회의 연대를 통해 양국 우호 증진, 동아시아적 신학 수렴, 사회사업 협력, 이단대처 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중구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북아선교연구원장 조장은 “한국 개신교회는 꾸준히 민족독립 운동의 바탕이 된 반면 중국 개신교회는 서양의 선교활동에 종속돼 있었고 민족독립 운동이나 민중해방 전통과 분

리됐던 경험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중국은 1949년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한 이래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삼자회)와 중국기독교연합회를 중심으로 일치하는 교회로 재정립되고 있다”면서 “한국교회는 교회 공공성 회복과 민족·민중과 함께 했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는 중국 개신교가 전개하는 신학사상 건설운동에 빗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양국 개신교회의 교류는 향후 세계 기독교와 신학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근원이 될 것이라는 게 김 소장의 전

망이다. 그는 “한·중 교회는 동북아 평화공동체 구축, 사회복지,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교량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왕운 삼자회 부주석은 “중국 기독교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소그룹 모임 다양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반면 목회자들이 양호한 신학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에게 많은 틈새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교회의 과제로 도시화, 다원화, 종파주의의 극복과 신학교육 강화, 목회자 대우 개선 등을 제시했다. 양명 광둥성기독교협회 회장은 “중국교회는 빠른 성장 단계를 지나 평온 성장의 단계로 들어섰다”면서 “젊은층이 점점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발전 중심이 점차 농촌에서 도시

로 옮겨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도시교회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성도들의 평균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파워 엘리트들이 교회로 인도되고 있다”면서 “이들을 통해 교회 발전의 여지가 커진 반면 목양에는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악청화 삼자회 부주석은 “베이징 등 중국 동북 및 연안지역에서 많은 교회가 일어나고 있지만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등 한국에서 발생한 이단 및 사교집단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면서 “한국교회의 이단대처 노력이 유병언 구원파와 박옥수 이요한 집단, 하나님의교회, 여호와의증인, JMS 등의 이단·사이비 단체가 중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막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교회 본질회복위한 대규모 연합성회 세계성령중양협 주최, 29일 서울 올림픽공원

세계성령중양협의회(세성협)는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한국교회 본질 회복을 위한 연합성회’를 개최한다. 연합성회에서는 유병 목회자들이 ‘회개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다시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을’이란 주제로 설교한다. 세성협은 이 행사에 6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성협은 세월호처럼 난파선이 된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돌아보면서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먼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취지로 행사를 마련했다. 앞서 10일 국민일보 대회의실에서 성회를 준비 중인 소강석 정인찬 권대진 오범열 안준배 목사가 좌담회를 가졌다.

목회자들은 교회 부흥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본질 회복’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회를 성령운동과 말씀운동으로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성회에서 대표대회장을 맡은 소 목사는 “한국교회의 일치와 연합이 중요하다”며 “분열을 거듭해 온 한국교회는 다윗과 같이 침상

을 적실 정도의 회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목사는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한국교회는 너무나 막연하게 낙관적인 기대로 출발했다”며 “그 결과 교회 성장은 정체됐고 교회 신실도는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권 목사는 “신학교가 사명을 다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세속주의를 벗어나면 교회가 회복될 것”이라며 “결국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고 나눌과 섬김, 겸손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목사는 “희생과 순종이 없는 값싼 은혜에 안주해선 안 된다”며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넘쳐나는 하나님의 도성을 만드는 운동을 한국교회가 벌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목사는 “한국교회가 영적 건강을 회복하면 반드시 축복의 시온소가 되고 하나님 은혜의 발원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교회호는 침몰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권 목사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원과, 전국 133곳에 지교회

기독교복음침례회(유병언 구원파) 신도 일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유병언 구원파의 지교회가 전국 133곳에 퍼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단 전문가들은 구원파 신도들이 유 전 회장의 조력자인 것으로 보고, 보다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11일 온라인 기독교 매체 ‘교회와 신앙’에 따르면 구원파의 지교회는 서울 29곳, 경기·인천 22곳, 경북·대구 20곳, 전남·광주 19곳, 경남·울산·부산 11곳, 충남·대전 11곳, 전북 9곳, 강원 7곳, 충북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정동섭 총재는 “신도들은 유 전 회장 보호에 사명감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구원파 이태종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10만 성도가 하루씩 유병언 전 회장을 숨겨줘 결국 모두가 잡혀가게 되더라도 최후까지 그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 총재는 “유 전 회장이 지교회에 숨어 있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병언 구원파는 전체 지교회 목록과 약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서울 29곳 경기·인천 22곳...신도 1만명 내외 추정

4곳, 제주 1곳으로 총 10개 권역 133곳에 달했다. 그간 유병언 구원파의 정확한 교세는 밝혀진 바 없다. 대외적으로 10만명의 신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이는 크게 부풀린 것으로 보인다. 현대종교 타지원 소장은 “이단들은 교세를 10배 이상 부풀려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신도 수는 1만명 내외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교회별로 정확한 신도의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전체 신도를 10만명으로 봤을 때 각 지역마다 평균 1000여명의 신도가, 1만여명으로 봤을 때 100여명의 신도가 분포됐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 공개된 구원파 지교회 주소는 서울 용산구의 서울교회와 경기도 안성 금수원을 비롯해 인천서구 단봉로, 경기도 파주 풀무골로, 수원 권선구 서둔로, 전남 목포 산대로, 전북 익산 옛목2길, 정읍 수성5로, 충북 제천 의림대로,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 광주 동구 소태길의 지교회 등 11곳뿐이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협회장 진용식 목사는 “유병언 구원파는 앞으로 신도들에게 신앙심을 강요하며 사업체 사수를 목표로 유병언의 도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보다 조직적이고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창극 총리 후보 발언 교계 엇갈린 성명 한교연 “마녀사냥 말라” NCKK “지명 철회하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두고 교계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교회에서 한 발언이라는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쪽과 왜곡된 역사관을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는 상황이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12일 문 후보자가 서울의 한 교회에서 한 “한일합방은 하나님의 뜻” 발언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 발언에 대한 일부 언론의 망언 규정을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한교연은 “문 후보의 발언은 신앙인으로서 성경적 역사관에 입각해 강요한 내용으로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될 수 없다”며 “강연 전체의 맥락을 살피지 않고 일부만 문제 삼는 마녀사냥식 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신앙인인 문 지명

자가 교회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강연한 내용을 세속적인 관점으로 비방, 폄훼하는 것에 대해 종교 자유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회연회도 “교회 안에서 이뤄진 기독교적 세계관에 의한 강연에서 기독교적 언어를 사용한 것을 거두절미하고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용어로 바꾸려는 것은 건강부화”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는 문 후보자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총리 후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NCKK는 보도자료를 통해 “역사에 대한 자신의 자의적인 해석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 마치 일본

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하고, 남북을 분단시킨 분이 하나님이라고 왜곡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부적절한 주장”이라

교계단체들, KBS 문창극 후보 보도 규탄집회

선민네트워크, 기독교유권자연맹 등 11개 교계 및 시민단체의 연합체인 선민회는 16일 KBS의 문창극 총리 후보의 보도를 비난하는 규탄집회를 가졌다. 선민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KBS 본관 앞 집회에서 KBS를 규탄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선민회는 15일 미리 공개한 성명서에서 “문 총리 후보자의 특강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그의 강연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넘쳐나는 훌륭한 강연이고 신앙고백”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가 주장했다. 이어 “이런 사람을 총리 후보로 지명한 박근혜 정권 역시 같은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벌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양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배: 오전 10: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엘교회  담임목사: 진용배 주일 1부예배(한): 오전 8:3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전 1:30 초등부(영양): 오전 10시, (영양): 오전 11시 유치: 유년: 오후 5:00, 오전 10: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 (704)529-0900 / 0998(텍스콜로)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양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cseattle.org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앵커리지리얼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영리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양)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915)755-1490, 사택,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청년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251)542-0288, Fax, (251)542-9037 706 Wilmer Rd, Horkham, PA 19044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날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Tel, (254)6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	워싱턴세이샤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제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15 수요일찬양: 오후 7:45 수요일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www.jkcs.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35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www.josephvision21.org 매일저녁7시(금, 토, 주일) Tel, (410)292-0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양)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새벽 6:00(토) Tel, (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월단) Tel, (253)535-6207, 531-8424 Fax, (253)535-1433 9702 E. B. St., Tacoma, WA 9844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명 1부예배: 오전 9:30 주일날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53)536-6675, Fax, (253)474-9515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템프장로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월단)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www.tpkccaz.com Tel, (480)726-0191, Fax, (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영양예배: 오후 7: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200 Fax, (718)886-0074 

“변하는 아시아와 새로운 선교전략” (5)

노봉린 박사
(ATA International Senior Advisor, Th.D)



IV. 오늘의 아시아의 5개 중요한 선교이슈

1. “민족복음화 운동”의 중요성

19세기와 20세기의 전통적 서양 선교단체들은 제3세계 복음화는 유럽과 북미의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다는 생각 밑에서 열정적인 헌신과 노력을 한 것이다. 그들은 많은 기독교 학교와 신학교를 세워 원주민 지도자를 배출했으나 각 나라의 복음화는 그 나라 원주민 기독교의 책임이라는 관점이 약했고 앞으로 21세기 제3세계 선교사의 수가 서양선교사의 수를 훨씬 초과할 것이라는 사실을 내다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는 변하였다. 외국선교사와 원주민교회의 관계는 “부자관계”로부터 “동반자관계”로 오늘날에는 “원주민 산하”의 관계로 변한 것이다. 이것은 서양 선교사와 아시아 선교가의 역할이 선교지에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1, 아시아-2 국가에

교회 성장폭발”이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주 후 1885년 한국에 처음으로 입국한 두 미국 선교사는 Dr. Horace Underwood(장로교)와 Dr. Horace Appenzeller(감리교)였다. 이들은 다른 선교사들과 같이 교회와 남녀 아이들을 위한 초, 중, 고등학교와 고아원, 병원을 건립하고 한국 사회에 많은 봉사를 하였다. 그들은 기독교대학과 신학교를 창설하여 한국교회의 지도자를 양성하여 한국교회의 기반을 세우게 되었다.

한국교회는 “핍박 받은 교회”로 알려져 있다. 일본제국 식민시대(1910-1945)에 한국교회는 신사참배 반대로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감금되었고 순교를 당했다. 6.25사변(1950-1953) 때 한국민족의 고통과 기독교인의 공산치하에서의 핍박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건이다. 한국교회의 급속도의 성장은 순교자들의 피 값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교회는 “민족복음화운동”을 강조하면서 한국 민족의 복음화는 한국 기독교인에게 달려 있다는 신앙을 갖고 열심히 전도하게 되었다.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이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국가 중 무슬림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이다. 2억3250만 명 인구 중 15%(복음주의교인은 5.6%)가 기독교인이다. 주후 2000년 Suharto대통령이 은퇴한 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슬람 보수주의를 적용하여 특별히 기독교 학교와 신학교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근래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독교를 더 압박하기 위하여 기독교대학과 신학교를 포함한 모든 기독교학교를 종교청에서 교육청으로 이전하였다.

인도에서 30여년간 뉴질랜드선교사로 신학교 사역을 했으며 ATA의 초창기(1970)부터 현대까지 아시아 복음주의 신학교육에 이바지한 Bruce Nicholls 박사는 2012년 필자에게 인도네시아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Ph. D학위를 가진 한국 신학교 교수 두세 교사를 요청하였다. 이유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근래 법을 바꿔 한 신학교가 정부의 인가를 받기 원하면 적어도 Ph.D 수준의 신학자가 5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한 신학교에 5명의 Ph.D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서구선교사가 한국교회 세웠지만 민족복음화는 한국교회가 담당
한국내 기독교박사 2천명... 아시아 1, 2 국가에 교수 파송 고려

서 사역하는 선교사는 원주민교회의 성숙상태를 인정하고 원주민교회가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며 같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사역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복음화 운동”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그 나라를 복음화 시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나라의 원주민 기독교인의 책임이다. 외국 선교사는 이 목적을 이루도록 원주민교회를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한 나라에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면 그 나라가 복음화 된다는 선교이론은 필연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450년의 긴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으며 전체 인구 1억2700만 명중 기독교인은 110만 명(0.8%)을 갖고 있으며 그 중에 641,351명(0.4%)이 개신교인이다. 일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의 수는 약3,500명으로 33개국에서 245개 선교단체로부터 파송을 받았다. 이러한 많은 선교사의 수에 더 많은 선교사를 일본에 파송한다 해서 일본이 복음화 되는 것이 아니다. 일본교회의 중요한 이슈는 일본민족복음화 운동이다. 1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과 8,023교회까지 일본복음화를 자기들의 책임인 것을 깊이 깨닫고 민족복음화운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 일본이 복음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놀라운 교회성장의 원인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필자는 “한국

1990년 한국의 4,000만명 인구 중 1,200만명 개신교인과 260만 명 천주교인이 있었다. 김준곤 목사(한국 CCC 창설자) 같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한국민족복음화운동”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놀라운 교회성장의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서양선교사들이 한국교회의 기반을 세웠지만 그 위에 한국교회가 민족복음화운동을 통하여 복음을 전한 결과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다.

2. 선교사 재배치 수정의 필요성

선교사는 여러 분야의 선교 사역을 하게 된다. 교회설립, 학생사역, 공장직공사역, 선교사 자녀교육, 신학교 사역 등의 다양한 사역을 하는데 각 사역마다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사역이 선교 지역의 상황에 따라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OMF, World Evangelical Crusade(WEC), Sudan Interior Mission(SIM) 같은 전통적 선교단체들은 성숙한 원주민교회가 세워진 아시아-1, 아시아-2 국가에서 교회설립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교회의 중요한 이슈의 하나는 영성과 학문적으로 훈련을 제대로 받은 목회자와 신학자 급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목회자와 신학교 사수를 배출하는 곳은 신학교이다. 앞으로 선교 단체들은 특별히 아시아-1, 아시아-2 국가에 있는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선교사들을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신학교들은 타국의 신학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표시하였다.

그 반면에 한국은 신학박사(Ph.D.), 기독교 교육박사(Ed.D.) 학위를 취득한 신학자의 수가 2,000명이 넘는다. 현재 한국의 신학대학원에서는 계속 신학박사 레벨의 신학자를 매년 수십 명 배출하고 있다. 이제는 한국에서 신학박사학위를 갖고도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찾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은 목회자와 신학자의 수가 넘쳐 나는데 아시아-1, 아시아-2 국가의 많은 신학교들은 자격있는 목회자와 신학자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열렬한 선교활동은 지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국 신학교와 신학자들 사이에는 미약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한국에 신학자선교대회가 필요하며 신학자선교협회가 절실히 필요하다.

Dr. Nicholls는 자기 선교단체인 Interserve 에도 인도네시아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선교사를 요구했으나 구하지 못하여 실망하였다. 그러므로 서양과 아시아의 선교단체들은 아시아의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선교사를 파송하여 그들이 더 많은 원주민교회 지도자를 배출하기를 바란다.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선교전략을 첫째로 민족복음화운동을 강조하면서 둘째로 선교단체들은 더 많은 신학교수선교사를 파송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계속)



방지일 칼럼 (44)
“본대로 들은 대로”
그리운 아량있는 인물

우리의 감각, 시정각 감각이 총동원되어 시야도 좀 넓게 또 고상하게 보면서 자라나야 아량이 있게 될 듯 하다. 시각만은 아니다. 모든 감각이 그러할 것이다. 좁은 땅에서 넓은 공간을 못 보고 산다면 아무래도 아량이 없을상 싶다. 근자에 서로 설전하고 치고받음에 있어 아량이 거의 없어보이니 보기도 듣기도 딱하기만 하다. 상해에서 들은 일이 생각난다.

상해 우리 임시정부가 있는데 국내서 뜻있게 나와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모인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일정의 앞잡이로 과격되어 오는 이들도 적지 않아 여기 전문적으로 책임을 진 이들이 있다. 마땅한 일이다. 어물어물하다가는 큰 곤경을 치루기도 한다. 거의 큰 고문을 당하게 된다. 한 젊은이는 고된 고문을 당하다가 엉뚱하게 도산선생을 만나게 해달라 하며 그가 오라고해서 왔더니 깜짝 놀라 취조하는 이들은 손을 놓았다. 도산선생에게 데려갔더니 도산선생은 이 사람 이제가 왔나? 반갑게 대하니 그를 취조하던 이들은 두려움기까지 했다. 한 젊은이를 살려주었다는 이야기였다. 도산선생의 그 넓은 마음은 보통사람으로 측량도 못한다.

도산선생을 중심으로 뭉쳤고 오늘날까지도 뭉치고 있는 그 이유를 알만하다. 한 사람을 살린다. 그의 앞길을 열어준다. 아량 있는 인재를 기르고 있다. 아량 없는 사람은 그 자신이 중심인고로 자신 이상을 보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신을 위하여 이용하려 할 때는 이용하고는 이용을 다한 다음에는 외면하고 만다. 오늘 우리 주변에 아량을 베푸는 인물이 얼마나 있는가 적극적으로 한 인재를 키우려함은 그 얼마나 큰 투자일 것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를 헐려 고만 하는 양상만 보이는 듯하니 한심해 보인다. 그런 당시자 문제에 국한하지를 않는다. 후배들에게 그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함이 문제이다. 이런 정형에서 자란 이들이 듣고 보고 배운 것이 이에서 지나지를 못한다면 앞으로의 우리네 앞길이 염려된다. 못된 짓을 하는 인간이라도 용납하여 아량 있게 선도 교도할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잘 속는다. 바보 같은 일이라 하겠지만 속는 것 같고도 그 속임수를 알고도 속는다. 바보짓이 아니라 속임 상대는 그 꾀재를 부르고 할 터이나 이 인재를 선도하려고 우선 속았다. 그 꾀재를 부르는 그에게 어떤 일을 맡기다 부탁한다. 그의 속임수를 앞잡이에게 예견한 부탁이요 맡긴 일을 해보면서 자신을 잘 알고 그렇게 맡긴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어질 때 그는 그 아량 있게 자기를 대함을 알아 속었던 일에 대한 과오를 알고 스스로 수치를 깨닫게 된다. 이로서 그는 그의 사람이 된다.

상대방의 비(非)를 지적하지 말고 상대방의 옳은 것, 시(是)를 지적하여줄 때 언제나 그는 내 편이 되어준다. 당을 짓기 위하여 내편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포섭하는데 있어 내편 된다함은 내게 적이 없게 됨이라. 적이 없다는 말은 다 내 벗이 된다는 말이니 벗이 많을수록 서로 합쳐서 큰일을 할 수 있다. 하는 일이 쉽게 된다. 이런 정치인이 나라에 있을 때 그 나라 그 백성은 복된 나라 복된 백성이다. 우리나라엔 도산만큼 벗을 만드는 인물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주님은 나를 구속하시어 자기의 친구를 삼으셨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비밀이 없다. 주님은 모든 비밀을 다 알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바울은 주님을 닮았다. 주의 분을 받으면서 주님의 분을 받은 자신을 본 받으라 함을 본다.

도의적으로 교양이나 수양을 쌓아 아량을 더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이는 제한된 아량이 아니면 조건 있는 아량이다. 자신이 더 큰 이익을 위한 방편의 아량이라, 상대를 이용하려는 아량이라, 이런 정형이 나타날 때 그 아량의 혐오감은 더욱 깊어지게 된다.

신앙적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데서 얻어진 아량이어야 틀림없다. 주님의 그 아량은 곧 자신의 희생으로 나타난 아량이라, 그 아량을 본받을 때 그 자신의 희생으로 베푸는 아량인 고로 그 관대함을 받을수록 그를 본받아 나도 희생하게 되니 희생보다 더 큰 힘은 없다. 희생은 천하는 얻는 힘이 있다.

(1999년, 3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한미연합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아예배: 오전 9:00, 11:0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8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영양) 주요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lafcus@yahoo.com / www.lafcus.org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청년)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www.youngnak.com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Tel. (323)388-7101, (F) (323)388-6564 213 S. Hobart Blvd., Bre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토요일: 오전 11:30 EM 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EM): 오후 1:30 주요 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Solidrock@gmail.com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목요 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www.scrdm.org Tel. (213)215-8523, Fax (213)977-118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남가주사망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1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10 (KDC:한국어예배) 영아예배: 오전 9:00 주일 4부 예배: 오후 1:1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요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 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hkc.org	동문교회 담임목사 : 김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312)483-6625, Fax. (312)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www.egkc.org	동양선교회 담임목사 :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전도예배: 오전 9:30 3부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323)466-1234, Fax. (323)466-0816 424 N. Western Ave., #A, Irvine, CA 90004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서비스 전용), Tel. (213)210-6890 1213 Garcia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드림교회 담임목사 :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 1부예배: 오전 9:30 영아 2부예배: 오전 11:30 월요일 예배: 오후 8:00 주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미중앙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1:30 주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영아)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mpci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오전 6:00(토) Tel. (310)749-0577 3521 Lomita Bl., #202-A Torrance CA, 90505	베델선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후 1:45 청년예배: 오전 11:00 대학생예배: 오후 1:00 다문화예배: 오후 1:0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 장세정 주일 1부찬양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대 예배: 오전 11:15 주요찬양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Tel. (626)339-6177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요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30(토) www.samsungchurch.org Tel. (562)890-8800, Fax. (562)890-8044 501 S. Ldaho St., Pasadena, CA 90631	새찬양교회 담임목사 : 변윤선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www.newpraisechurch.org / ysbson@gmail.com Tel. (714)826-0100, Tel. (714)844-9377 6269 Ball Rd., Cypress, CA 90630	새생명선교회 담임목사 : 김만수 영아 1부예배: 오전 9:30 한미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오후 7:00(금)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중, 고등부: 오전 11:00(주일) Tel. (818)952-2449 13005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새벽(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안다옥장로교회 담임목사 : 지윤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후 12:30(영아) 주요찬양예배: 오후 1:45 청년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주요예배: 오전 11:00 Tel. (818)249-2871, Fax. (818)249-0516 www.iaapc.org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얼바인침례교회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 일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저녁 7:30 금요 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요 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요찬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은혜찬양예배: 오후 2:45(주일) www.gracemci.com Tel. (714)448-6200, Fax. (714)448-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요찬양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cj.org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estone.org / e-mail: pastor@acornestone.com Fax.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4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요찬양예배: 오후 2:00(EM) 주요찬양예배: 오후 3:00(청년) 장학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gc.org Tel. 310-370-5505 /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62)

6. 교회교육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굳이 교육학 혹은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았다고 해도 “커리큘럼(Curriculum)”이라는 말은 사회 안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도 익숙하게 회자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달리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동사 Curere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그 명사형 중에 하나가 바로 “Curriculum”입니다. 커리큘럼이라는 단어의 뜻은 본래 ‘말이 달리는 길 (Course of race)’이며, 좀 더 풀어 말하자면 “경주로를 (따라) 달리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통용되는 교육적 개념으로서의 커리큘럼은 그 본래의 의미를 바탕으로 하면 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체계와 연속성이 요구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한국어로는 “교육 과정”이라고 번역되고 있는데, 크게 벗어난 해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구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어느 때 누구에게 가르칠지 계획이 서지 않는다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검증할 수 없으며, 이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라 칭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또한 체계를 가지고 교육에 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믿기만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문제는 교회와 사역자들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커리큘럼을 수립하는 것의 핵심은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들에 답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먼저 담임 목회자와 담당교역자들이 그리고 교육부 멤버들이 이

물론 직접 책자로 된(혹은 web) 자료들을 만들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나, 형식보다는 내용 자체가 중요하거나 심지어 내용 자체를 생산해내는 것이 불가능해도 괜찮습니다. 이미 위에서 열거한 여러 분야들에 대한 질 좋은 교육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한인교회에게는 적재적소에 배치한 교육계획들을 위해 최적의 교육 자료들을 선택하는 지혜가 당장은 실질적인 내용을 생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련의 교육계획과 교육내용이 수립되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기존에 있는 교재를 중 가장 적합한 것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커리큘럼의 이수만큼 “교육 백년지대계”라는 말의 진가를 되돌아보

커리큘럼: 체계적 계획 따라 가르치려는 교육내용 전반
장기적 안목으로 연속성과 체계를 갖고 교육에 임해야

“커리큘럼”이라는 말을 듣고 흔히들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바로 다양한 교육책자들 혹은 교육 자료들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에서 흔히 성경공부 교재로 사용하는 그런 교육책자들 및 자료를 말합니다. 사실 완전히 틀린 이해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한인교회의 과제로서 다루고자하는 커리큘럼은 좁은 의미의 커리큘럼만이 아니라 이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커리큘럼입니다. 이는 체계적인 “교육계획”에 따라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내용의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르칠 것들의 목록 혹은 학년별로 시기별로 가르칠 내용들 자체를 일컫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학습자들의 학습경험 및 학습결과까지 포괄하며, 무엇을 직접 가르치고, 무엇을 은연중에 가르칠 것이며, 무엇을 가르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고려 또한 포함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인교회 기독교 교육의 여섯 번째 미래적 과제로 제시하고자하는 것은 한인교회가 그 교육을 위해 바로 그러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커리큘럼을 수립하고 또한 실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한인교회의 기독교 교육이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모습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질문들을 마음에 새기고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함께 기도하며 지혜를 모아 우리 자녀들과 성인 성도들을 위한 가르침의 큰 틀을 세우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교회 커리큘럼 수립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수립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하는 것으로 일단 절반은 이룬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그간 체계를 세우지 못했던 어린아이들부터 대학 청년부에 이르는 다음세대들을 위한 교육내용들 그리고 성인 성도들을 위한 교육내용들을 차근차근 되짚어보고 그 내용들에 질서를 부여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학교들과는 달리 교회는 성경이라는 단 하나의 근간이 되는 교과서가 정해져 있으므로 어찌 보면 훨씬 수월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인교회에 있어서 커리큘럼 수립이란 성경지식, 크리스천의 영적생활, 크리스천적 도덕, 덕목, 및 인격 함양, 교리와 교리문답서, 생활예의 적용 및 실천,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한 심화적 단계, 또한 이민 자녀 혹은 이민자에게 특별히 유용한 삶과 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들까지 다양한 분야들을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작업입니다. 그 후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생산해야 합니다.

게 만드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커리큘럼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은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그 긴 교육여정에 합당하고 적절한 이정표들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감히 말씀을 드리거니와, 수 많은 우리 한인 교회들 중 이러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성인 신도들을 교육하는 곳은 아직 단 한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교회들을 위해 미국 교단들의 교육부들 혹은 산하 출판사에서 나온 문서화된 커리큘럼을 짜여진대로 주문, 구입하여 사용하는 교회들은 더러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개 교회 상황에 맞게, 전체 교회의 목회방향에 맞게, 우리 한인자녀들 및 한인어른들의 상황을 고려한 그러한 자교회의 자체 커리큘럼 없이, 심지어 미국교회가 자신들을 위해 계획한 전체 커리큘럼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저 그 책자들만 빌려서 구색을 맞추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 한인교회가 이러한 현실에 처해 있는지,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타계해 나가야 할지를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매일가정예배

허운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시편16:8)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삶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삶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는 뜻은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단순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고 순종하게 됩니다.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기본 좋을 때나 형편이 나아질 때만 아니라 고난을 받을 때나 괴로울 때나 평강을 누릴 때

나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순간순간 체험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우편에 계시다”는 뜻은 “나의 오른 손에”라는 뜻인데 우편은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므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성도는 그 오른 손에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습니다.

화 내 마음이 기쁘고!(시편16:9)

시16편 결론부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받아 누릴 축복입니다. 먼저 영육 간에 강건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9절)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복되심을 고백하는 성도, 땅에 있는 성도를 존귀히 여기며 모든 즐거움이 교회에 있는 성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한분 사랑하고 한분만으로 만족하는 성도, 그리고 성

령께서 이 심령에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는 것을 깊이 새기며 감사 찬양하는 성도,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사는 성도님들은 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너무 너무 기뻐서 결국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나의 상태와 나의 상황이 이 기쁨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즐거움이 밖으로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수 내 입술도 즐거워하며!(시편16:9)

주님을 내 앞에 모시니까 기쁨이 넘칩니다. “내 영광도 즐거워한다”는 뜻은 기쁨이 넘쳐서 더 이상 속으로 감추고 있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로 기쁨을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술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어성경에도 “my tongue rejoices”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내 입술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기쁨이 충만할 때에 나의 육체도 평강가운

데 안전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축복은 마음만 기쁜 것이 아니라 육체도 안전히 거하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몸이 아프면 마음까지도 아픕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프면 이 몸도 병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힘을 누리며 안전하게 거하게 하십니다. 아멘!

목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시편16:10-11)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삶의 축복은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10절). “영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쉬” 즉 “생명, 내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생명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썩지 않고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안전한 것이 아니

라 영원한 하나님나라에 가서도 영광스럽게 부활해 영원히 안전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이 구절로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담대하고 사망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시편17:1)

시17편은 “기도의 시”입니다. 특별히 히브리말로 “탄식의 기도”라고 돼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는 다윗이 악인들이 괴롭히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간구하는 기도 시입니다. 다윗이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감당하며 나갔는가에 대한 간증입니다. 먼저 끝까지 정직하게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귀울이소서”라고 하면서, 세 번이나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 잘못된 것을 고쳐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직함”을 들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는 내가 잘못 다거나 아니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뜻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기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토 내 기도에 귀를 귀울이소서!(시편17:1)

오늘 우리에게 주는 주님을 향한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비록 잘못했을 경우에도 역시 하나님의 의로 우심을 붙잡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롬은 “오 하나님여, 정직한 자의 소리를 들으소서, 메시아의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주석했습니다. “부르짖음에 주의 하소서” 이 구절은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기도는 그저 입으로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심정을 통하는 마음으로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린이이 울음과 같다면 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솔하게 계속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성회

날짜 2014년 6월 24일(화, 저녁)
~ 7월 8일(화, 저녁)

시간 새벽 5:30, 오전 10:30, 저녁 7:30

강사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장소 미주 갈멜산기도원 본당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문의 (213) 382-1450 www.galmelsan.or.kr

나성 동산교회
부흥성회

강사 조성근 목사(갈멜산금식기도원 담임)

날짜 2014년 6월 26일(목, 저녁)
~ 29일(주일, 오전 11:00)

시간 저녁 7:30, 새벽 5:30

장소 나성 동산교회(담임 한기형 감독)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문의 (213) 487-3920



인/터/뷰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정관일 목사 (캐나다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은 ‘선교’”

지난달 20일부터 3박4일 동안 캐나다 토론토 매리웃 호텔에서 개최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제38회 정기총회에서 총회장으로 당선된 정관일 목사(캐나다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와의 지상 인터뷰를 게재한다.

정관일 총회장은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막16:15)이라는 주제에 맞춘 개회설교에서 “지난해 총회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았다”며, “그런 결실이 있기까지 총회산하 교회들과 임원들의 수고로 나타난 총회의 저력과 교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감사한다. 그러나 앞으로 나갈 길은 간단치는 않다. 아직 남아있는 일을 어떻게 수습해나가는가 따라 총회의 미래가 있다”고 말하고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을 만날지 모른다”며 선교하는 총회 상을 강조했다.

1. 총회장으로 당선된 소감

먼저 부족한 사람이 거대한 총회 책임을 맞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본 총회 안에 유능한 인물이 많음에도 저 같은 비천한 종에게 직임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 시대에 뜻하신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

을 믿고 총회가 요청하는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습니다.

2. 임기동안 총회를 위해 특별히 계획하는 것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는 1978년 총회조직 후 금년에 38회째를 맞는, 미주뿐 아니라 세계 도처에 있는 최대 교단으로 30여 노회, 650여 목회자, 1250여 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우리 신조는 개혁주의를 근간으로 오직 성경만 믿고, 성경만 신앙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따르는 대표



3. 섬기는 교회 소개

가든교회는 토론토 시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9년 7월 개척했습니다. 금년 7월 6일로 2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무장로 7명, 부교역자 10여명, 영아부로부터 청년부, 장년부, 주일 출석인원은 합 430명 정도입니다.

목회철학이라고 한다면 말씀 중심은 물론이고 특히 기도도 목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교회는 잠들지 않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목회 비전을 갖고 일년 365일 새벽기도회를 쉬지 않습니다. 매일 밤 9시 자유기도 시간으로 문을 열고 한 달에 한번 마지막 주일에 8시간 철야기도를 실시합니다. 수요일 낮에는 여성기도회 등으로 가든교회의 특징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목회 원리, 신앙적 승패가 첫째 기도에 달려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 한국교회와 미국교회를 보는 견해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회개와 단순한 기도운동이 아닌 혁명의 불씨가 교단적으로 점화되지 않으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맞는 교회로써 주님 앞에 면목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대형교회들의 비리도 법정 비화로 번지고 있는 부끄러운 현상을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나 동일하게 복음 전도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평신도까지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회개로 시작되는 성결 기도 혁명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기 때문에 사소한 일까지도 큰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힘없는 교회가 됩니다. 영적 부흥이 와야 합니다. 교단 안에서도 정말로 영적쇄신의 깃발을 든 젊은 사람, 교단을 각성시킬 새 인물, 조나단 에드워드, 웨슬리 같은 인물이 나오기로 간구합니다.

5. 미주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조언은?

첫째, 모든 교회마다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기도소리가 멈추지 않게 하고, 개 교회의 일로 분열을 일으켜 노회나 총회까지 분열케 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분쟁으로 주님의 몸의 아픔이 더 이상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둘째, 모든 개개인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크리스천다운, 양심이 살아있는 성도의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전도가 힘들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거듭난 성도라면 성령(불)을 속에 지니고 있는 자들임을 인식하는 성도가 됐으면 합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문제해결 앞서 근본적 사명인 전도와 기도 힘써야 교단 각성시킬 영적쇄신의 깃발 든 새 인물 기대

적인 교단입니다.

특별한 계획은 지상 명령인 선교 교정책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서 선교 중심적인 총회로 거듭나 신령한 역량을 구비하고 교회의 에너지가 새나가지 않도록 하여 개교회가 부흥 성장하도록 할 것입니다. 선교를 실천하도록 정책을 구체화하여 지교회에 전달 실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총회내 세계선교회(회장 이용걸 목사)와 협의하여 회원교회들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총회는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선교와 전도를 안하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비본질적인 곳에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게 됩니

다. 그러면 결국 교회가 약해지고 총회가 약해집니다. 총회가 이탈자들과의 당면 문제 때문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감당해야 할 선교(전도)를 안하면 약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합니다. 총회와 교회의 원전적 사명의 문제인 선교와 전도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물질문명(문화)이 현대화하는 가운데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의존 신앙이 퇴색해 가면서 인본주의 사상이 성경 중심 신앙을 위축시키므로 교회(기독교)의 순수한 순교적인 신앙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대에 말씀으로 돌아가는 부흥운동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사방문

서소희 사모 (찬양사역자, 복음방송 아나운서)

‘주님과 거닐다...’ 첫 CD 발매



찬양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서소희 찬양사역자가 11일 오전 본사를 방문, 그의 첫 앨범인 ‘서소희 주님과 거닐다...’와 함께 자신의 사역을 소개했다.

그녀의 찬양사역은 대학 입학과 함께 시작됐다. 당시 ‘찬양하는 사람들’ 여성보컬로 활동을 시작해 전국을 돌

로 달려가 사회자로, 찬양사역자로 섬겨왔다.

이처럼 찬양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노래를 만들어 불러보고 싶은 마음이 커갈 즈음 동역자들의 권유를 받고 용기를 냈다. 그는 오래전 자신에게 닥쳤던 방향의 순간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느꼈던 그 시절에 적어

원하게 됐어요. 한밤중에 병실 창가를 내다보며 무수히 빛나는 불빛 속에서 고요히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에 나를 주목하고 계심을 느끼게 됐죠. 주님이 날 바라보시며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심하고 고백했습니다. 내 평생 아버지를 떠

그 길을 가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나를 다시 살리셨네’, ‘주님과 거닐 때’, ‘나 때문에’, ‘주가 부르지 아니하면’, ‘생물과 같은 보혈은’, ‘나의 죄를 씻기’, ‘나를 숨 쉬게 하네’가 수록되었고 첫 곡과 두 번째 곡인 ‘그 길을 가렵니다’와 ‘내 맘이 낙심되며’가 반주곡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

첫 앨범을 발표한 서소희 사모는 어머니 김선호 목사와 아버지 서경진 집사가 영적인 멘토이며 든든한 기도 후원자라고 말하며 남편 윤재홍 전도사(아름다운교회)와 앨범이 출판되도록 도와준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를 표했다.

앨범구입 및 사역에 관한 문의는 (213)864-4192, sopleasel1@gmail.com 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2015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서는 2015년 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4년 9월 30일**
광고 접수마감 2014년 9월 30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유 료 광 고 안 내	둘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500.00
			Inside	\$2,2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1,000.00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1/4	15.5cm × 5.8cm		\$350.00
		7.7cm × 11.7cm		
전면1/8	15.5 × 2.8cm		\$250.00	
	7.7cm × 5.8cm			
둘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축하광고(사진삽입)	3.7cm × 7.5cm		\$200.00	

무
료
리
스
팅
신
청
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 dir@chpress.net 로 보내주시시오.